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2019년 스페인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성공과 유권자의 이념 지향

The success of the far-right party an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voters in Spain's 2019 election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Ribas Ramirez, Cesar Augusto

2019년 스페인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성공과 유권자의 이념 지향

지도 교수 한정훈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Ribas Ramirez, Cesar Augusto

Ribas Ramirez, Cesar augusto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04월

위 원 장	문우식	(인)
부위원장	은기수	(인)
위 원	한정훈	(인)

초 록

본 논문은 스페인 극우당인 복스(Vox)가 스페인 2019년 11월 총선거에 이룬 성공의 이유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스페인 복스 2019년 11월의 총선거 성공 요인은 스페인 국민들의 자가 정치적 이념의 변화가 아닌 정당들의 동원 전략 그리고 정치의 우파 경쟁에 근거를 둔다고 결론한다. 극우당인 복스가 2018년 안달루시아 의회의 109석 중 12석을 얻었을 때, 유럽의 스페인 극우 예외주의는 종식되었다. 그때까지 스페인 정치는 국가 및 지역 의회의 극우 정치주의자 들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웠다.

유럽의 극우 현상은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와 자주 관련돼 왔고 유럽에서도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설에 찬성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스페인의 경우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많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계의 당파적 이익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논문에서는 복스의 선거 성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그 대신 스페인 극우당의 선거 성공의 이유를 찾기 위해 스페인 사람들의 자가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 복스의 동원 전략; 스페인 우파 정당들 간의 정치적 경쟁; 이 세 주제에 대한 지표와 사건들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자가 이념에 대한 평가(PSI)에 의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에는 변화가 크게 없었고, 따라서 현재의 복스 유권자들은 이 당이 존재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이념의 평가(PPI)에 의하면 국민들의 우파 정당들에 대한 평가는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스페인 정당들의 동원 전략과 우파 정당들의

경쟁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한다.

둘째, 복스는 정치마케팅 3.0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동원 전략을 통해 나머지 정당들과 차별화를 입증했다. 정치마케팅 3.0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더 넓은 연령 투표자의 목표 그룹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제안; (2) 3.0 정치 마케팅 환경의 기본 전략의 집중적인 사용: 공동 창조와 협업 경제; (3) 명성을 얻기 위한 강력한 제스처를 포함한 서사적 서술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개발; (4) 전통적인 미디어의 지원 없이 소셜 미디어만을 통한 브랜드와 메시지의 구축.

셋째, 복스가 우파 영역에서의 당파적 주도권 경쟁의 틀에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파 표심을 단일화할 수 있었던 Aznar 정권 이후 국민당이 정당성과 인기에 장기적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 우파 영역에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전략과 극우 이념을 가진 복스가 정치적 노선이 더 중도적인 시우다다노스보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분석의 목적은 스페인 극우세력의 부상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 새로운 지식, 접근 방법 및 질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 함으로서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의 적절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주요어 : 신생정당, 극우당, 정치적 이념, 정치적 동원 전략, 정당 경쟁
학 번 : 2020-2007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배경 1
제 2 절 방법론 7

제 2 장 스페인 내 극우당의 등장과 성장 17
제 1 절 좌우의 개념적 정의 17
제 2 절 극우정당의 성장의 역사적 배경 22
제 3 절 극우정당 성장의 요인 25

제 3 장 스페인 유권자의 이념 지향과 극우당의 성공 34
제 1 절 복스의 기원 34
제 2 절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 변화 46
제 3 절 복스의 동원 전략 44
제 4 절 스페인 우파에 경쟁력 54

제 4 장 결론 65

참고문헌 68

Abstract 81

표 목차

[표 1] 3
[표 2] 10
[표 3] 11
[표 4] 11
[표 5] 12
[표 6] 13
[표 7] 13
[표 8] 18
[표 9] 20
[표 10] 21
[표 11] 28
[표 12] 38

[표 13] 39
[표 14] 40
[표 15] 46
[표 16] 49
[표 17] 55

그림 목차

[그림 1] 6
[그림 2] 14
[그림 3] 15
[그림 4] 52
[그림 5] 52
[그림 6] 53
[그림 7] 54
[그림 8] 61
[그림 9] 62
[그림 10] 62
[그림 11] 63

제 1 장 서론

제 1 절 배경

스페인과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의 독재 끝에 민주적 전환으로 시작해 이들 국가의 정치사를 규정해 온 양당 체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동의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다. 스페인에서는 2015년 총선 결과 양당 체제가 종식되면서 다당제가 시작됐다. 이런 맥락에서 극우파가 2019년 스페인 의회에 입성했다. 그때까지, 유럽에서 스페인은 의회에서 극우파의 존재로부터 제외된 유일한 나라들 중 하나였다. 본 연구는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가 2019년 11월 총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원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2015년까지 스페인식 정치체제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 예를 들어 대한민국 등에도 이러한 원인과 관련된 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스페인 선거 과정에서 복스의 성공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반동주의 정치조직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게다가 의회에서 극우파의 존재가 정상화되면, 다스당들도 극우 정당 담론의 측면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들 중 일부를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극우 정당의 부상을 막는 주요 목적은 극우의 사상이 한 나라의 법률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Rodriguez-Aguilera 2014).

1975년에 스페인 독재자 Francisco Franco가 사망한 후 스페인은 민주적 입헌군주제로의 평화로운 전환을 실시했다. 현재 스페인은 법치와 복지를 기반으로 시장경제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스페인은 입헌군주제를 정치 형태로 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정치 체제는 국가 주권, 권력 분립, 의원내각제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스페인의 정치 체제는 입법부와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 체제다. 국가 주권의 주인은 모든 스페인 국민으로 입법, 행정,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파생된다. 국민들은 자유·보통·비밀·다원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을 통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대중 입법 발의, 공직 유지, 청원권 행사, 협의 참여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권력분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가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통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낸다. (Gobierno de España)

본 논문은 스페인의 정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스페인의 정치적 역사 배경과 영토 체제, 그리고 정치 체제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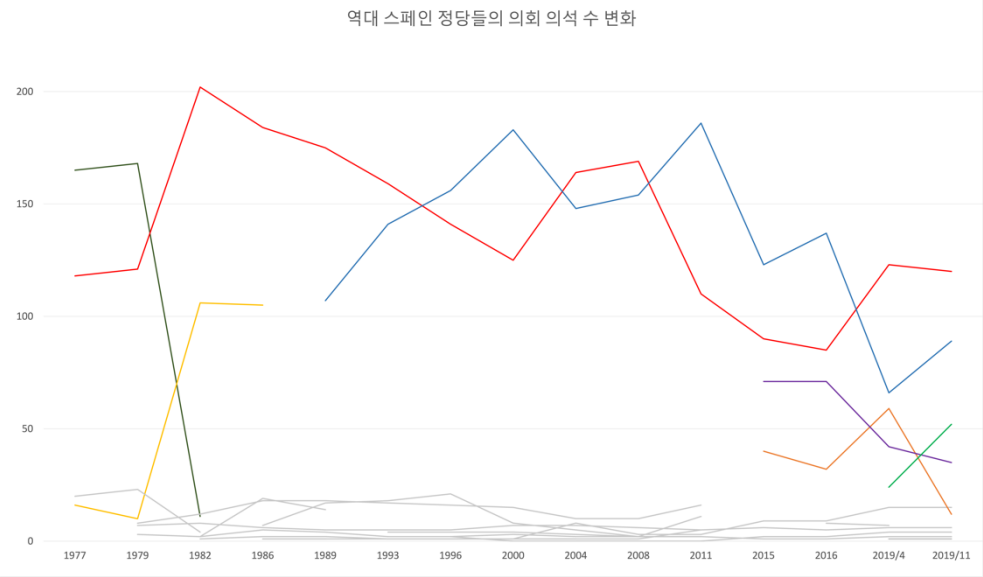
스페인의 민주적 전환은 스페인 언론(Yssés, P. 2010)뿐만 아니라 학계(Linz & Stephan, 1996)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학계와 언론은 1978년 스페인 헌법 초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한 것에는 스페인 정치 엘리트들의 공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Francisco Franco 정권의 정치 엘리트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에 적응한 과정은 최초의 스페인 민주 대통령 Adolfo Suarez의 역할에서 잘 드러난다. Suarez는 Franco 정권 하에서 정치 경력을 통해 여러 역할을 수행했다. Franco 독재 정권의 말기에 Suarez는 파랑해당 (국민생디칼리슴 공세평의회 에스파냐 전통주의자 팔랑헤)의 부비서장(1975년)과 장관 비서장(1975년-1976년) 등의 높은 정부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후 1977년 Suarez는 민주중앙협회당(UCD) 보수정당 연합을 이끌었고, 새 헌법 하에 제 1과 제 2 스페인 총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후는 진보적인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과 보수적인 국민당(PP)이 정권을 주고 받았으며, 1982 - 2015년까지 거의 양당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1982년 - 2015년의 스페인 정치 체제는 절대적인 양당체제라고 할 수가 없다. 1977년 민주정권이 시작된 이래로 의회에는 계속해서 소수당들이 존재했다. 역사적으로, 민주중앙협회당 정권 이후 주요 정치 주체는 진보적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보수적 국민당이었다. 이 두 다수당 하에는, 총선거로 생긴 정권들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수많은 소수당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지역 정당, 공산당, 그리고 좌파연합(IU)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 그리고 2019년에 스페인의 극우정당 복스가 의회에 합류한 결과로 스페인의 정치체제가 다당 체제로 변화했다. 2015년 총선거부터 2019년 11월 총선거까지의 정치적 현황은 격동적이었다. 2015년(제 12 입법부), 2016년(제 13 입법부), 2019년 4월(제 14 입법부), 11월(제 15 입법부)에 총 4번의 총선이 치러졌고, 제 12 입법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스페인 민주적 정권 교체 이후 가장 짧았다. 2015년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 정부를 구성할 수 없어 총선이 다시 소집됐다. 제 13 입법부에서는 국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내부적 위기를

겪었다. 그 후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민주당의 부패 사건에 대응하는 문책 동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69표, 기권 1표를 얻어 국민당 정권을 몰아 내었다. 이는 총 5번의 문책 동의 중 유일하게 현재 스페인 헌법 역사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그러나, 제 14 입법부를 위한 절대 다수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 했으며, 2019년 11월에 제 15 입법부를 위한 선거가 다시 소집되었다. 2019년 11월 총선거는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승리로 끝났으며, 좌파 연합인 우니다스 포데모스와 손을 잡고 2차 투표에서 여러 지역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역대 스페인 정당들의 총선거 의석 수 변화를 통해서 신생정당들의 증가와 그 외 소수당들의 의석 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첫 두 번의 총선 이후 민주중앙협회당은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추후 스페인 미래 국민당이 되는 국민횝회당(AP)보다 현저하게 낮은 의석 수를 얻었음을 보인다. 그 후,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국민당은 현재까지 미래의 13개 입법부를 이끌어왔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1982년, 1986년, 1989년, 1993년, 1996년, 2004년, 2008년, 2019/4년, 2019/11년, 2016년 등 8번 입법부를 이끌었으며, 국민당은 1996년, 2000년, 2011년, 2015년, 2016년 등 5번 입법부를 이끌었다. 국민당의 의석 수가 증가하면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의석 수는 감소하고 그 반대의 상황을 보이기도 하며 서로 정반대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부터 2011년 까지의 기간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해당 기간 동안은 두 다수당이 거의 평행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6년 선거에서 좌파협회가 21석의 의석을 얻은 것 외에는 2015년 총선까지 스페인 소수당들의 의회 참여가 한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추세는 포데모스와 시우다노스가 각각 71석과 40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바뀌었다. 2016년 총선거에서는 포데모스가 71석을 얻고, 시우다다노스는 32석을 얻었다. 2019년 4월, 59석을 얻은 시우다다노스가 42석을 얻은 피데모스를 앞질렀다. 이 때 복스는 24석을 가지고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포데모스의 의석은 35석으로 감소했고, 시우다다노스의 의석 수도 17석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복스는 52석을 얻으며 의회에서의 복스의 존재감은 급부상하였다.

표 1. 역대 스페인 정당들의 의회 좌석 수 변화



민주중앙 협회당	녹색
스페인 사회당	빨강색
국민협회당	노랑색
국민당	파랑색
시우다다노스	주황색
포데모스	보라색
복스	연두색
소수당	회색

출처: BOE

2008년 경제위기의 결과로 나타난 2011년 3월 15일 민주혁명(15M)은 스페인 국민의 정치에 대한인식 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의 경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15M운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포데모스(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생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 입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동시에 카탈루냐 지방에만 존재했던 시우다다노스 우파 정당은 국가적인 규모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후 2018년 스페인의 남쪽 지방 안달루시아의 의회에 복스가 12석을 얻으면서 스페인 최초로 극우정당이 의회에 입성한 사례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신생정당은 상이한 이념을 가졌지만 강력한 반부패, 그리고 다수당과 차별화 되는

동원 전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동원 전략은 스페인에서 정치적 담론이 일어난 방식을 변화시켰고 다수당들도 같은 동원 전략을 따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새롭고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존재는 다수당들이 브랜딩 전략을 변화시키는 자극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본 논문 전반에 걸쳐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스페인 왕국의 정치적 영토 분할은 1978년 스페인 헌법 제8부에 정의되어 있으며 시[①], 도, 광역자치주의 세 가지 단계의 영토 조직을 설립한다. 국가는 스페인 영토의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함으로서 연대의 원칙의 실현을 보장한다. 광역자치주는 헌법으로 보장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스페인 국가의 불가분 통일을 선언 함으로서 구성된다. 스페인은 지방분권화 수준이 높지만 각 광역자치주가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국가가 아니다. 헌법에 명시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모델을 암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모델을 "광역자치주 국가"라고 명명했다. 현재 스페인 헌법 제2조는 "헌법은 모든 스페인인의 공통적이고 불가분의 고향인 스페인 민족의 불가분의 단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민족과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은 국가의 존재를 우선시하면서 스페인의 복수국적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스페인에는 8131개의 시가 있다. 스페인의 시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영토 조직을 구성하고 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시의 행정은 시청이 담당하며, 행정권을 가진 시장과 시의원은 보통선거에 기반하여 선출된다. 스페인의 모든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후에는 해당 시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 받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투표권이나 공직에 선출될 권리를 포함하는 특정한 의무도 부여 받게 된다. 지방 선거의 투표권은 해외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에게도 해당하는데, 해외에 있는 스페인 국민은 영사관에 등록하면 마지막으로 거주한 시의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스페인 국민은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

① 스페인의 시(municipio)는 시청(ayuntamiento)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대한민국의 시, 동, 읍, 면 등의 크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크기로 존재한다.

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스페인에는 스페인의 2급 행정 구역인 50개의 도가 있다. 1833년 히스패닉 왕국의 영토에 기반을 둔 행정 구역이 신설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지리적, 인구학적 이유로 분할되었다. 이 계획은 1833년 이후로 약간의 조정만 거쳤으며, 1927년 카나리아 제도를 두 개의 주로 분할한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도는 다수의 시로 구성되는 행정 구역이며, 각 도의 통치는 해당 행정구역에 소속한 시의 대표들이 수행한다. 각 도의 자치권은 그들이 속한 광역자치주에 따라 다르다. 광역자치주 시스템을 실시한 이래로 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도들의 자치권은 미미한 상태로 이어져왔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에는 1급 영토 조직인 17개의 광역자치주와 2개의 독립 도시가 있다. 광역자치주 체제는 1978년 스페인 헌법이 공포된 후 최초로 각 지방이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승인되었다. 광역자치주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지닌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도; 섬 지역; 역사적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단일 도 라는 기준에 따라 형성되었다. 광역자치주는 큰 규모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광역자치주의 자치권은 동일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주가 동질성과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선언했다. 광역자치주는 헌법 질서에 대한 종속성, 스페인 의회에서의 대표성, 각 광역자치주의 거주자들이 다른 광역자치주와 달리 경제적 또는 사회적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모든 광역자치주는 의회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스페인의 정치 체제는 D'Hont 선거법에 근거를 둔 의원내각제이다. 정당 체제는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양당체제 이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다당체제로 유지되어왔다. 다당체제로 전환된 이래로 신생정당들의 존재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비춰졌고, 차차 인정받는 것으로 발전했다(Reyero Simón. L, 2020). 이러한 신생정당들이 의회에 포함되면서 연립정부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2022년 11월 현재 행정권은 대통령, 부통령 2명, 14명의 스페인 사회노동당 장관, 3명의 포데모스 장관, 1명의 독립 장관, 그리고 바르셀로나 엥 코메(Barcelona en Comú)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스페인 정치의 독재정권에서 양당제로, 마지막으로 현재의 다당제로의 변화가 스페인 정치 엘리트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숙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많은 학자들은 의회에서 더 많은 수의 정당이 존재하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강화되고 이것이 연립(Linz 1990; Duverger 1997; Hochstetler 2006)으로 구성될 때 정부의 질이 향상된다고 옹호한다. 다만 스페인 극우정당의 창당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성과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전까지 스페인 정치는 국가 및 지역 의회에 극우 정치 행위자들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웠으나, 복스가 2018년 안달루시아 의회의 109석 중 12석을 얻었을 때, 유럽의 스페인 예외주의는 종식되었다. 2018년 안달루시아 광역차지주 선거로 복스가 안달루시아 의회에 입성하고 집권 연립여당의 일부가 될 때 까지, 극우정당 현상은 스페인 정치(참조)에서 영향력이 미미했다. 복스는 2019년 4월 총선에서 10.26%의 의석을 얻었고, 같은 해 11월 총선에서는 15.8%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 현상은 포퓰리즘과 유럽의 극우성향에 대한 함축적 의미로 큰 학술적 관심을 받았고, 국민 정치 이념적 변화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Montalbes & Cazorla 2021).

제 2 절 방법론

복스가 2019년 11월의 총선거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의 이유를 검토하기위해서 스페인사회과학연구센터(CIS)가 공유하는 바로미터와 스페인 공식국가기관지(BOE), 그리고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헌들을 분석한다. 스페인사회과학연구센터(CIS)는 주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스페인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자치 단체이고, 대통령부 하에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사회과학연구센터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센터의 주도로 수행되거나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다. 2009년 1월부터 CIS는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모든 마이크로 데이터 파일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웹사이트에는 분석가 및 연구자의 2차 사용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되어 있다. 조사 및 기록 활동 외에도, CIS 《사회과학 연구 보고서》(Reis)라는 학술지와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 서적을 출판한다. 본 논문은 1993에 출판된 Essays in Index Number Theory(Dr. Diewert, Dr. Nakamura)에 근거를 둔 CIS 바로미터 연구 방법론(Rey del Castillo, 2004)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CIS 바로미터는 1996년부터 매달 실시되어온 여론조사로, 스페인 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황과 총선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조사한다.

또한 본 논문은 분석에 필요한 정당들의 선거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공식국가기관지(BOE)를 사용한다. BOE는 스페인의 공식 관보로, BOE의 내용은 스페인 대통령실과 왕실의 승인 하에 출판되며, 스페인 의회의 법령과 스페인 자치 공동체에서 제정된 법령을 발행한다. BOE는 1978년 스페인 헌법에 부합하며, 9.3조의 모든 스페인 사법, 왕실 및 국가 정부 법령과 각료회의의 모든 명령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는 모든 스페인 사법, 왕실 및 국가 정부 법령과 각료회의의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2월 8일 왕실령 181/2008[1]에 따르면, BOE는 스페인 왕국의 공식 저널로, 주 정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법률, 규정 및 기타 법률에 대해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정당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 정당의 단원 현황과 수입원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페인 정당들은 수입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단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공개하는 수입원의 정보에 비해 단원에 대한 정보가 학사 연구에 이용하는 것에 있어 보다 제한적이다.

CIS 바로미터의 매월 조사에 포함되는 질문들 중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질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CIS 바로미터의 설문조사는 항상 범위, 샘플링 절차, 샘플 크기 등을 유사하게 설정하고 질문과 답의 형식 또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답변자들의 경향을 추적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CIS 바로미터는 정치와 경제, 사회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 정부와 다수당의 성과 평가; 총선 투표의향, 투표 추정치; 국민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게시한다. 본 논문은 CIS 바로미터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한 데이터에 집중한다.

CIS 바로미터의 설문조사 내용은 그 자체로 특정 변수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또다른 지표를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은 CIS 바로미터에서 수집한 정치적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들 중 정치적 이념, 정치적인 상황, 정당 지도자에 대한 평가라는 세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Rey del Castillo 2004에 의해 개발된 지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지표 수치는 CIS 바로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발췌한다. 해당 설문조사에서의 변수는 대개 질적 변수인데,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은 5가지 응답 옵션을 가진 질적 변수를 발생시킨다. 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3 유형의 답변을 가진 질문들이다. 1. 긍정, 무효, 부정, 2. 매우 양호, 공평, 불량, 불량, 매우 불량 또는 3. 0에서 10까지의 등급이다. 결과는 각 옵션에 대한 응답의 산술 평균으로 표시된다. 본 논문은 정치적 이념, 정치 상황, 정당 지도자 인기 3까지 주제와 관련한 질문들을 분석한다. 이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스페인 국민의 자가 정치적 이념 평가 (SPI, Self Political Identification):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좌파와 우파라는 표현을 이용한다. 좌파는 1이며 우파는 10이이라는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표(표 2)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 평가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페인 국민의 스페인 정당들에 대한 정치적 이념 평가 (PPI, Party Political Identification): ´같은 규모로 각 정당이나 정당을 어디에 둘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전반적으로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 (GPSI, General Political Situation Index):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다, 좋다, 그냥 그렇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4. 정치 상황에 대한 기대 (PEI, Political Expectations Index): ´1년 뒤에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게, 그대로, 아니면 더 나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5. 정당 지도자 인기에 대한 평가 (LPI, Leader Popularity Index) ´다음과 같은 정치자들을 보고 아는지 그리고 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나쁜 평가인 경우면 0을 선택하시고 매우 좋은 평가인 경우면 10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 (PTI, Political Trust Indicator)의 지표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치에 대한 기대의 산술 평균으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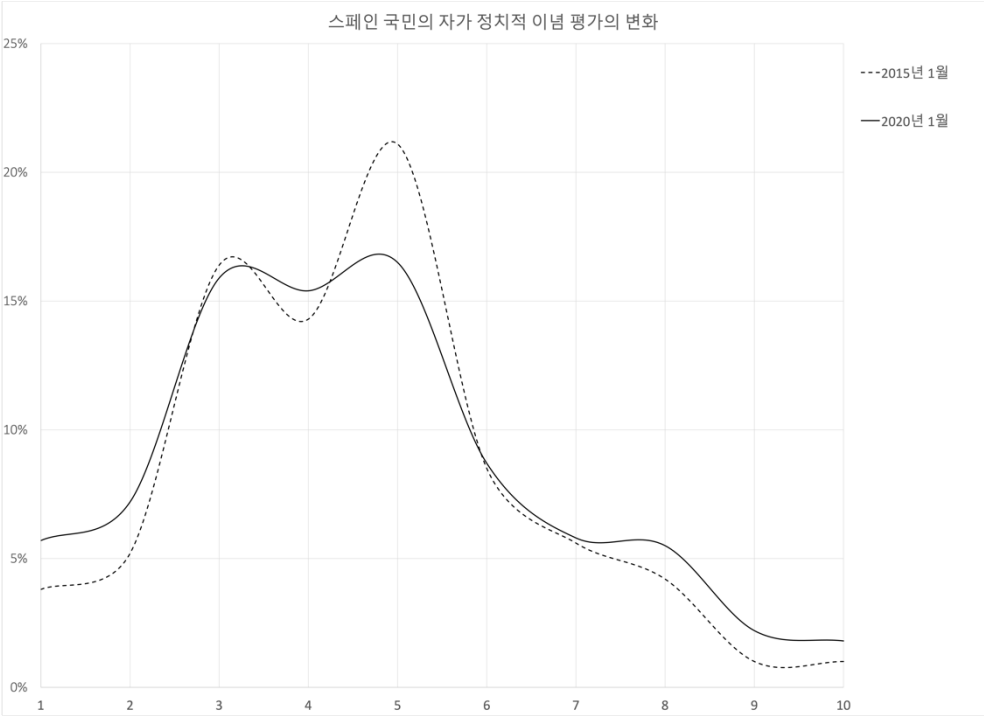
표 2.

1	3.8%
2	5.1%
3	14.0%
4	14.0%
5	20.9%
6	10.7%
7	7.3%
8	4.8%
9	1.7%
10	0.8%
모름	11.1%
대답 한함	5.7
(N)	(2,477)
평균	4.73%
Standard Deviation	1.91
(N)	(2,062)

출처: CIS 바로미터 (20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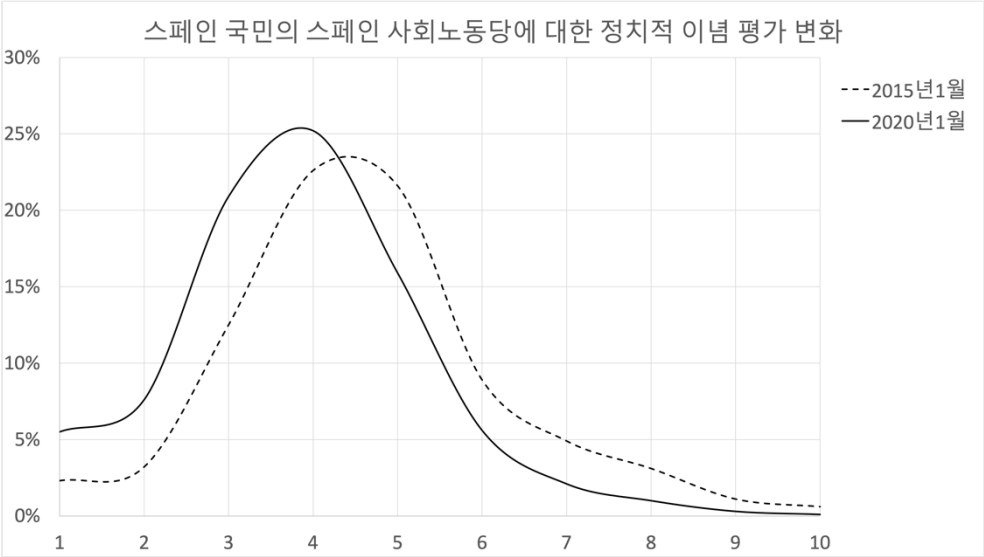
SPI와 PPI를 통해서 스페인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 및 정당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두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그래프(표 3, 4, 5)를 만들었다. 그래프의 y축이 특정 답변을 한 시민의 비율 그리고, x축은 1에서 시작하여 극좌를 나타내고, 10에서 끝나는 극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었다. PPI 경우는 2015년 총선부터 2019년 11월 총선까지 진행된 이념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 1월과 2020년 1월에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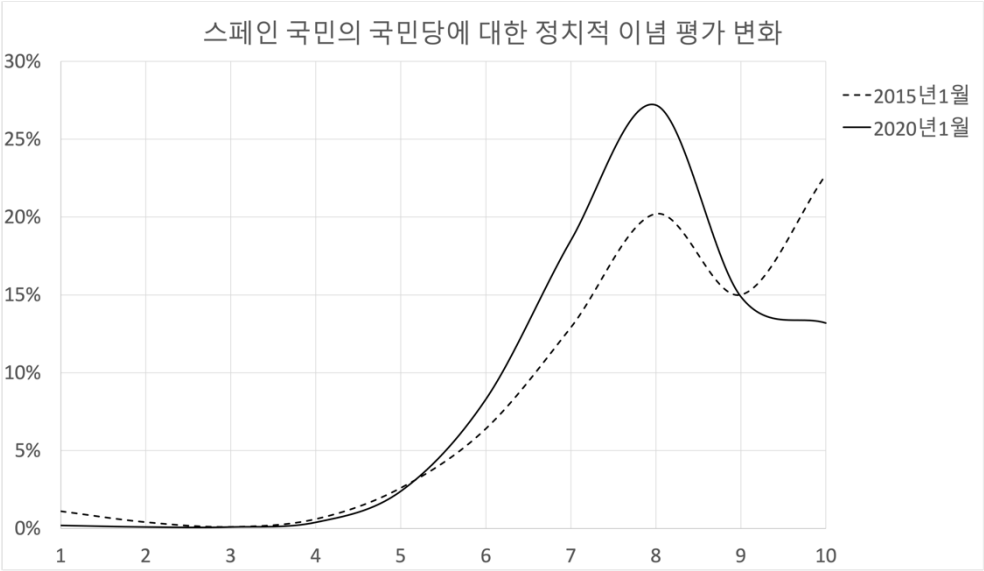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피터

표 4.



출처: CIS 바로미터

표 5.



출처: CIS 바로피터

GPSI, PEI 및 LPI 지표의 경우는 각 질문에 대한 지표의 산술 평균이 전체 지표로 계산된다. 이 지표와 관련된 반응 옵션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로 점진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해당 조사의 지표들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로 0부터 100까지의 점수가 사용되었다. 문제가 3개의 응답을 제공하는지, 5개의 정답을 제공하는지 또는 0에서 10까지의 진행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각 지표의 수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p는 각 응답과 관련하는 수치다. 이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표 6, 7)가 생긴다.

$$GPSI = \frac{100.p_1 + 75.p_2 + 50.p_3 + 25.p_4 + 0.p_5}{p_1 + p_2 + p_3 + p_4 + p_5}$$

$$PEI = \frac{100.p_1 + +50.p_2 + 0.p_3}{p_1 + p_2 + p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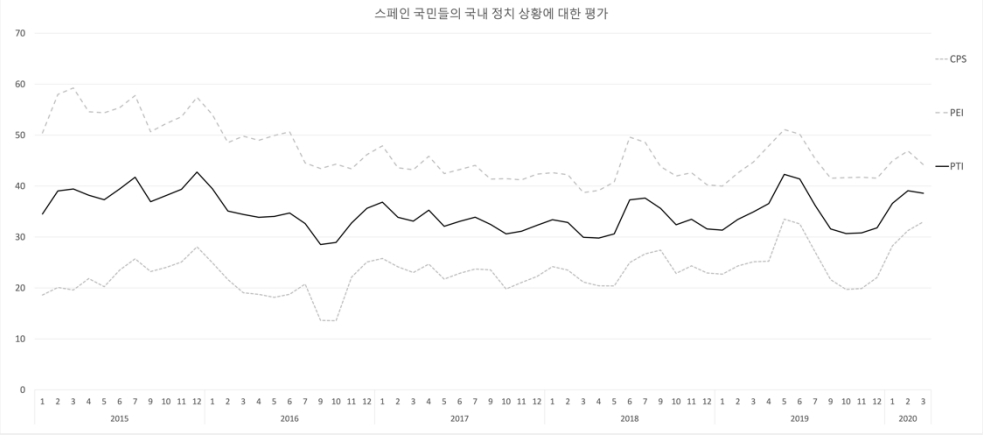
$$LPI = \frac{100.p_{10} + 90.p_9 + 80.p_8 + 70.p_7 + 60.p_6 + 50.p_6 + 40.p_4 + 30.p_3 + 20.p_2 + 10.p_1 + 0.p_0}{p_1 + p_2 + p_3 + p_4 + p_5 + p_6 + p_7 + p_8 + p_9 + p_{10}}$$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 (Political Trust Indicator, PTI)의 지표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치에 대한 기대의 산술 평균으로 표하게 된다.

$$PTI = \frac{CPS + PE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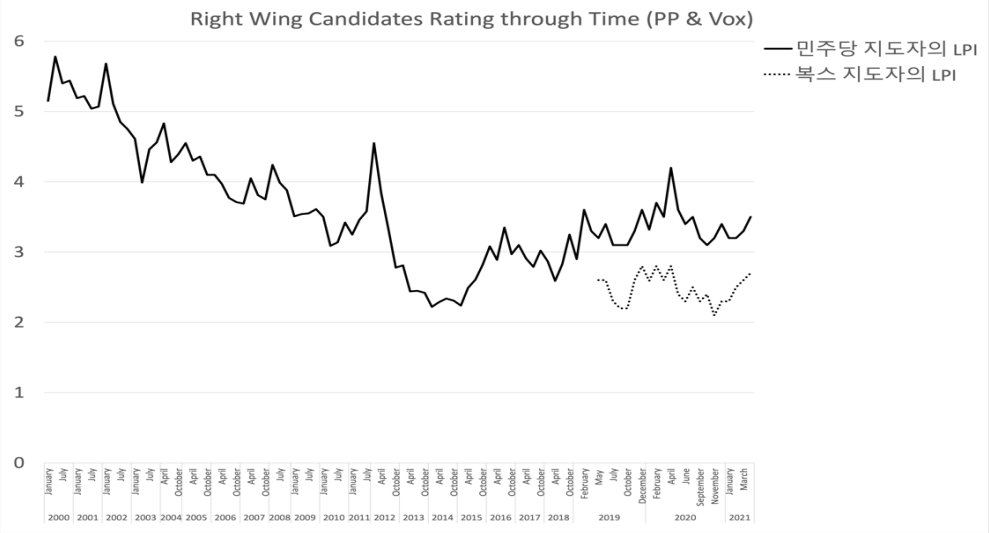
이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표 6, 7)가 생긴다.

표 6. 스페인의 PTI, CPS, PEI (2015 - 2020)



출처: CIS 바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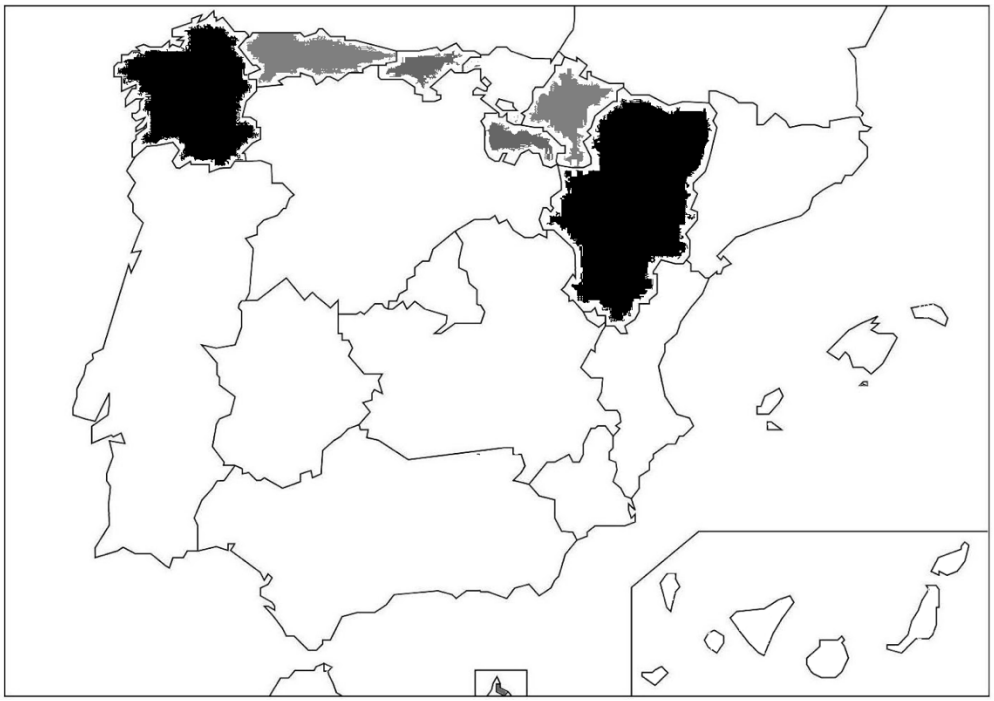
표 7.



출처: CIS 바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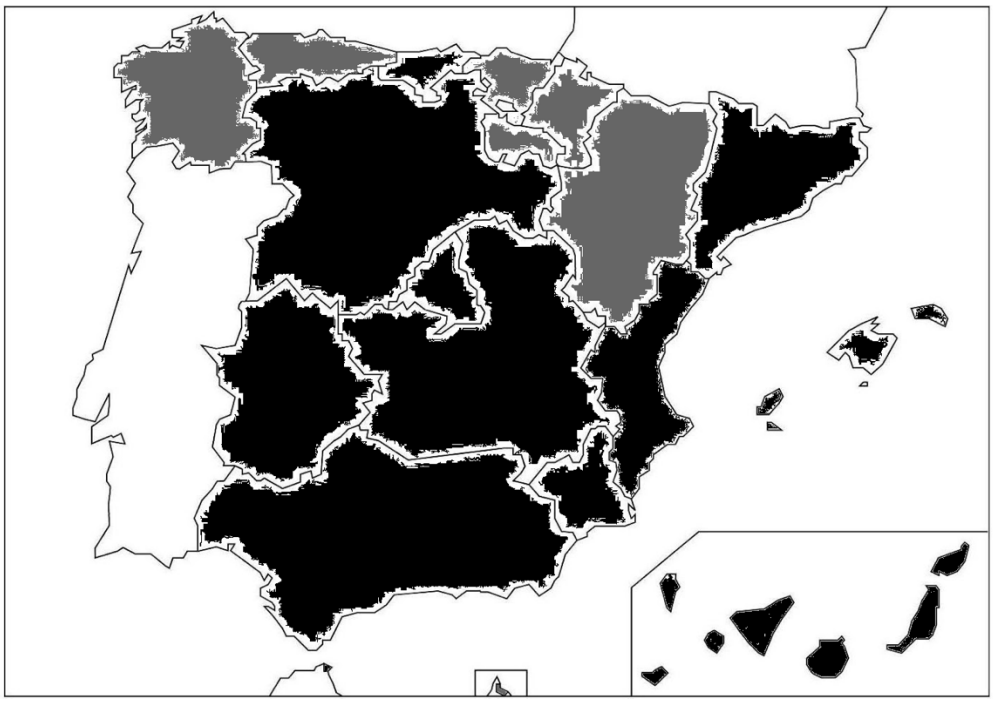
스페인 정당들의 선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BOE에서 공개한 자료를 이용해 스페인 지도에 스페인 의회에서의 민주당과 복스의 의석수를 광역자치주 별로 표시한다 (그림 2, 3). 국민당의 경우에는 스페인 양당체제가 끝나던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진행한 4회의 총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비교하며, 복스의 경우에는 스페인 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2019년 4월, 2019년 11월에 진행된 2회의 총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한다. 한 광역자치주에 대표성이 증가하면 검은 색으로 표시하고 차이가 없으면 회색으로 표시, 감소하면 하얀색으로 표시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스페인 다당 체제 시기의 민주당 과 복스의 지지층의 지역적 기반과 변화를 분석하며, 스페인 우파에 경쟁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2. 국민당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5년 – 2019/11년 총선거)



출처: BOE

그림 3. 복스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9/4년 – 2019/11년 총선거)



출처: BOE

본 연구는 CIS 바로미터와 BOE에서 얻은 데이터 및 현재 학술적 논쟁에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스페인에서 극우파가 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한다. 첫째,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자가 이념에 대한 평가(PSI)에 의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에는 변화가 크게 없었고, 따라서 현재의 복스 유권자들은 이 당이 존재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이념의 평가(PPI)에 의하면 국민들의 우파 정당들에 대한 평가는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스페인 정당들의 동원 전략과 우파 정당들의 경쟁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한다.

둘째, 복스는 정치마케팅 3.0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동원 전략을 통해 나머지 정당들과 차별화를 입증했다. 정치마케팅 3.0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더 넓은 연령 투표자의 목표 그룹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제안; (2) 3.0 정치 마케팅 환경의 기본 전략의 집중적인 사용: 공동 창조와 협업 경제; (3) 명성을 얻기 위한 강력한 제스처를 포함한 서사적 서술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개발; (4) 전통적인 미디어의 지원 없이 소셜 미디어만을 통한 브랜드와 메시지의 구축.

셋째, 복스가 우파 영역에서의 당파적 주도권 경쟁의 틀에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파 표심을 단일화할 수 있었던 Aznar 정권 이후 국민당이 정당성과 인기에 장기적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 우파 영역에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전략과 극우 이념을 가진 복스가 정치적 노선이 더 중도적인 시우다다노스보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음 세 장을 통해서 2 장에는 먼저 복스의 총선거의 성공에 관한 학계 토론을 분석하고 복스의 제도적인 기원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장에는 CIS바로미터, BOE, 등을 데이터 출처를 사용해서 자가 정치적 이념, 정치적 상황, 지도자의 인기에 대한 평가도 분석하며 복스의 동원전략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는 진행한 분석의 결과를 표시한다.

제 2 장 스페인 내 극우당의 등장과 성장

이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 절에서는 스페인에서 좌우의 개념적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 2 절에서는 유럽 극우 정당의 성장에 대한 논쟁을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 3 절에서는 학계와 언론에서 극우 정당들과 자주 관련된 포퓰리즘이란 용어에 대한 분석부터 검토하며 극우 이념, 스페인 국민의 정치적 이념, 스페인의 극우 경향, 복스와 관련한 작품을 검토한다.

제 1 절 좌우의 개념적 정의

좌우 분단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정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이 연구의 경우는 현실의 사회적 표현과 관련된 이념적 분열을 참조한다. 역사적으로 이념을 인지할 수 있는 정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좌익이나 우익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주제들의 정치적 이념은 정당들의 의도성에서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 주제들을 자신의 선전에 추가하며 그의 결과로 그 주제들이 어느 당파적 정치적 이념과 연결하게 된다 (Medina, Torcal, Perea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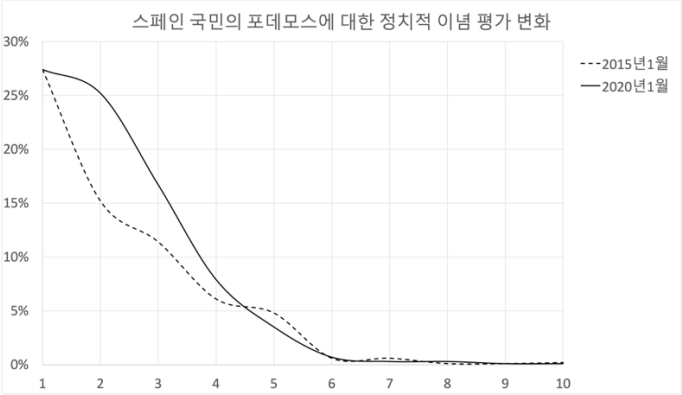
이것은 정당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정부 행동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대안 중에서 개인의 노력을 보상하는 것과 보다 평등한 소득 분배를 촉진하는 것; 또는 경제에 대한 다소간의 정부 통제 사이의 선택 중 하나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당들은 보통 자신의 제안을 제시하며, 이는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따라 개념적이고 공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될 수 있다.

아래는 스페인 시민들의 좌우 이념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2019년 11월 선거 결과 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사회·경제적 의제를 간략히 분석한다. 이 분석은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국민당인 두 다수당, 그리고 포데모스, 시우다다노스, 복스인 스페인의 신생정당에 집중한다. 또한, 시민들이 이념적으로 각 정당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두는지 추가한다. 하지만 신생정당의 경우에는 그들의 이념을 충분히 다루는 엄격한 분석이 아직 없다(참고 자료).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연구는 스페인 정치의 현황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하다.

포데모스

대부분의 분석은 포데모스를 좌익(Sola & Renddueles 2017; Palacio Martín & Rico Motos 2017)에서 극좌(Bosco, Verney, Adams 2017; Turcu & Urbatsch 2020)의 이념적으로 위치한다. 스페인 얼론 매체는 포데모스가 자본주의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등주의 또는 기회균등의 방어와 부의 분배해 한다고 하는 주장이 그 예의 중에서 하나다.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또는 공화주의는 정치 분석가들에 의해 강조된 정당 이념의 다른 특징들이다.

표 8. 포데모스의 PPI (2015 - 2020)



출처: CIS 바로미터

스페인 사회노동당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이념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변화했다. 1879년에 창당되었으며,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100년 동안 노동자 계급,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정의되었다(Juliá 1997). 1979년에는 스페인 사회노동당 회의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이념적 정의로서 포기하게 된 결정한 후부터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스페인의 양대 정당 중 하나가 되었다(Ollero Bulter 1980). 1978년에 시작된 헌정 기간 동안 스페인 사회 노동당 지도자들 중에서 스페인 대통령이 된 인물이 세 명이 있다. 스페인 대통령이 된 스페인 사회노동당 지도자들은 펠리페 곤살레스(1982년-1996년),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2004년-2011년), 페드로 산체스(2018년-현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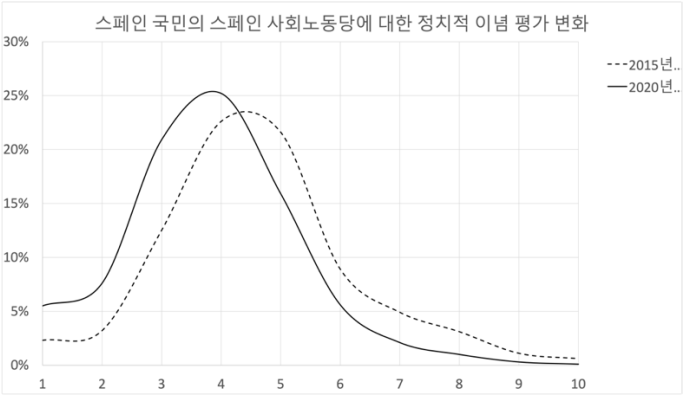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1978년의 헌법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정당의 결의는 "공화주의 가치"의 촉진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2014년 후안 카를로스 1세의 퇴위 이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여 비판을 받았다(Press Europa 2014).

곤살레스 행정부의 정책들은 사회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되었다(Martínez, et al. 1999). 다른 저자는 펠리페 곤살레스가 이끄는 "중도적"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처음 두 정부에 의해 적용된 정책들은 "자유주의적 진보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Martín Arce 2008). 또 다른 저자들은 펠리페 곤살레스의 몇몇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로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지했다(Donald Share 1989; Miren Etxezarreta 1991). 그리고 몇 소식통들은 스페인 사회노동당을 사회민주주의와 연결시켰다(Diamandouros, et al. 2001; Almeida 2012). 그러나 1982년 이래 스페인 사회노동당 행정부에서 최소한 세 명의 재무장관들이 (미겔 보이어, 카를로스 솔차가, 페드로 솔베스)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묘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경제 정책은 비첸시 나바로에 의해 신자유주의로 정의되었다(Fronteras 2019).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선택한 사회-정치적 문재에 대한 입장의 예로 1980년대의 세속적 국가 체제; 산모의 생명, 태아 기형, 강간 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를 옹호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입장을 선택한 것은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좌익 진보적인 정당으로 보이게 되는 근거 중 하나다. 최근 몇 년 동안,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동성애 결혼, 그리고 시한 낙태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표 5.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P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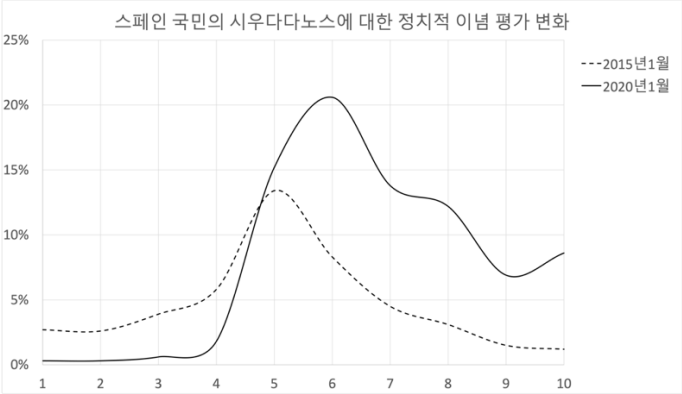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시우다다노스

시우다노스는 우파와 좌파의 입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심부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시도한 정당인 것을 볼 수 있다(Navarro 2015).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교 정치학과 오리올 바르토메우스 교수는 시우다다노스의 제안만 분석하면 "시우다다노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익에 가깝지만 가치(낙태, 동성결혼) 측면에서는 좌익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봤다(Cañizares 2015).

표 9. 시우다다노스의 P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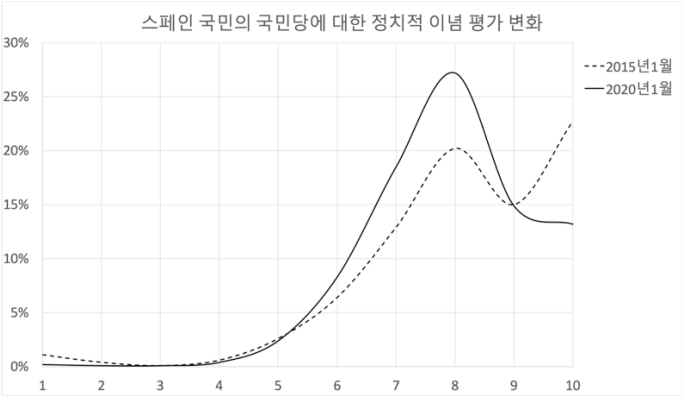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국민당

국민당은 스페인 자유-보수주의 정당으로 중도 우파(Jansen & Vsn Hecke 2011; Newton 1997)와 정치 우파(Ferreiro & Serrano 2001; Encarnación 2008) 사이에 위치한다. 1989년 1월 20일 옛 국민협회당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스페인 대통령이 된 국민당 지도자들은 호세 마리아 아즈나르(1996년-2004년)와 마리아노 라호이(2011년-2018년)다.

훌루셰크와 코페셰크가 국민당을 스페인의 주요 보수-자유 정당으로 묘사하며, 호세 마리아 아즈나르 대통령의 행정부 동안 국민당이 기독교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보수 정당으로 변했음을 관찰했다(Hloušek & Kopeček 2016). 마그논은 호세 마리아 아즈나르가 기독교민주당 노선을 따라 국민당을 더 현대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한다(Magnone 2017).

표 6. 국민당의 P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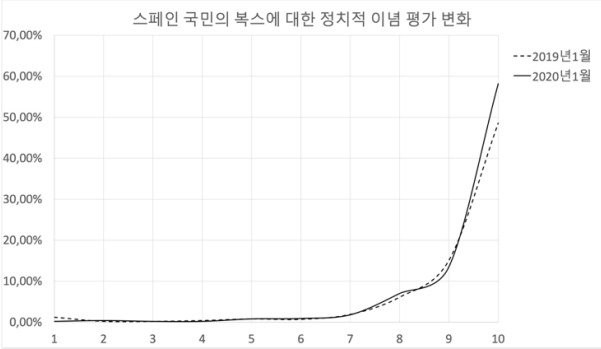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복스

복스는 2013년 12월 17일에 설립한 스페인의 정당이다. 복스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우, 급진적인 포퓰리즘 우파, 또는 극우 정당으로 묘사된다(Calleja 2022; Cassals i Meseguer 2020). 그러나 일부 보수 성향 언론들은 복스를 '우파' 정당으로 지칭한다(Herrera 2018). 복스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복스를 극우 (혹은 급진적 우파)에 두는 것에 동의한다. 저자들은 복스가 극우 정당으로 파악하는 특성들은 초국가주의, 토착주의, 보수주의, 권위주의, 역사수정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지적했다[②].

표 10. 복스의 PPI (2019 - 2020)



출처: CIS 바로미터

[②] Cas Mudde (제오르지아 대학교), Xavier Casals (라몬 룰 대학교), Beatriz Acha (나바라 대학교), Cristina Monge (자라고자 대학교), Jorge Urdánoz (나바라 대학교), Steven Forti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Emilio Gentile (로마 대학교), 등.

따라서 스페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좌파 영역에 포데모스(좌파)와 스페인 사회노동당(중도좌파)이 있고, 중도 영역에 시우다다노스가 있고, 우파 영역에 국민당(우파)와 복스(극우)가 있는 덧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의 결과로 스페인 측면에서 좌파 이념과 관련하는 사회·정치적인 주장은 낙태 응호, 평등주의, 공화주의, 사회자유주의,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우파 이념과 관련하는 사회·정치적인 주장은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 2 절 극우정당의 성장의 역사적 배경

정치학에서 급진적 극우(radical far-right)와 포퓰리즘 극우(populist far-right)라는 용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의 범위를 정의하는 용어들이다(Hillebrand 2014). 포퓰리즘 국우 단체들은 세계화와 이민에 대한 반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유럽 연합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을 공유해왔다. 극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우파 포퓰리즘, 백인 민족주의, 신파시즘을 포함한다(Bar-On 2018; Minkenberg 2011).

극우라는 용어는 1950년대 매카시즘 시대에 활동한 다양한 반공주의 집단에 적용됐던 미국의 정치 담론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와 그에 수반되는 개념은 사회 과학을 통해 서유럽으로 들어갔다. 반대로, 유럽 학자들이 "우파 극단주의"라는 용어는 서독 국민민주당과 프랑스 푸자디스트와 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생긴 극우 단체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극우라는 용어는 미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Kaplan 1998).

1996년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카스 무데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우파 극단주의"와 "극우파"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언급했다. 저자가 독일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우파 극단주의(Rechsradikalismus)라는 용어는 정치적 주류를 벗어나지만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우파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언급했다. 우파 극단주의라는 용어는 국가의 합헌성을 위협하고 따라서 독일 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극우파"(Rechsextremen)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다(Mudde 1996). 독일의 과학자 클라우스 왈에 따르면, 극우는 우파 포퓰리즘에서

인종주의, 테러리즘, 전체주의까지 다른 정도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사용함으로써 확장된다(Wahl 2020).

1980년대에 우파 신생정당들이 유럽에서 증가하면서 이 정당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저자들은 이러한 우파 신생정당들이 본질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저자들은 각 정당들의 고유한 국가적 특징과 상황을 지적한다. 우파 신생정당들이 파시스트 시대로의 후퇴로 보는 저자들과 반면, 선거의 매력을 넓히기 위해 우파, 자유주의, 포퓰리즘을 혼합한 것으로 보는 저자들도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더 강력한 이민 통제와 실업 이민자들의 송환을 제안함으로써 반이민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한 이 극우 정당들이 사회적 혜택과 고용에 대한 국가적인 선호(즉, 시민만)를 요구하는데, 이는 "복지 쇼비니즘"으로 정의된다. 이전의 극우 정당이나 파시스트 정당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유럽 극우정당들은 한 나라의 정치와 선거 제도 안에서 활동하며, 현재 정치체제를 무너뜨릴 목표는 없지만 반체제로 정의한다. 이 정당들은 정당 시스템에서 자신들을 "외부자들"로 간주해서 정부나 주류 정당들의 추문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Givens 2005).

2000년 민켄베르크는 극우를 정치적 이념으로 규정했다. 저자는 급진 우파의 핵심 요소는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라는 근본원칙에 반하는 낭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초국가주의인 동질국가 신화라고 주장했다. 현대의 극우는 군주제나 봉건제 같은 민주주의 이전의 정권으로 돌아가고 싶지 말고 현대 극우는 정부가 민주주의보다는 민족주의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를 원한다(Minkenberg 2000). 또한, "과격 우파의 이데올로기는 현대와 포스트모던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위협(예: 세계화, 이민)을 강조한다고 주장한 저자도 있다(Wahl 2020). 또한, 로빈스-얼리 기사는 유럽의 극우가 유럽 국가들 내에서 "때때로 독설적(vitriolic)인 반유로, 반이민 정서, 그리고 새로운 안보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묘사했다(Robins-Early 2015). 같은 전선에서 스피에링스는 2015년에 안드레이 자스러브가 포퓰리즘 극우 정당들을 "반국가, 반관료, 반엘리트, 반유럽 연합의 정치적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잘 요약했다(Spierings & Zaslove 2017).

복스는 유럼 극우 정당 특징들 중 일부를 공유하지만, 복스 고유의 특이점들로 구별된다. 제 1 절에서 언급했듯이 복스의 이념은

초국가주의, 토착주의, 보수주의, 권위주의, 역사수정주의, 신자유주의로 정의된다. 초국가주의는 복스의 제안에 잘 존재하기 때문에 복스는 다른 스페인과 유럽의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된다. 그러나 다른 유럽 극우 정당에 비해 복스에서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덜 두드러지지만, 복스가 원주민 단체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적 입장과 외국인 혐오적 메시지와의 결합이다. 페레이라에 따르면, 복스는 내부의 적들, 분리주의, 그리고 외부의 적들, 세계주의자들과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이민들에 대한 투쟁에 바탕을 둔 토착주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한다. 보수주의와 관련해서는 정치학자 베아트리즈 아차에 따르면, 복스는 프랑코 극우 정당의 담론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가톨릭 가치관의 방어를 가정한다. 또한 카를 페레이라는 복스가 법과 질서에 기초한 사회질서에 대한 접근을 강하게 옹호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경향도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 복스는 불법 이민, 스페인의 상징을 침해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종신형 복직을 옹호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서 복스는 프랑코 시대의 역사적 수정주의를 제안한다. 복스가 파시스트나 프랑코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사적 기억의 정책에 대해 급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고 대신에 프랑코의 기억을 되살리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복스에 포퓰리즘이 다른 유럽 극우 정당에 비해 덜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스의 경제 프로그램은 트루 핀이나 덴마크 인민당과 같은 극우 북유럽 정당들의 더 많은 통계적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명백히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복스의 담론에서 신자유주의는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법질서의 방어만큼 관련성이 있는 이슈는 아니다 (Acha 2021; Ferreira 2019).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현재 급진 우파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원인이 있지만, 어느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아보는 어렵다. 확실히, 2008년에 촉발된 경제 위기와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 당국에 의해 수행된 신자유주의적 적자 통제와 긴축 조치들이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한 경제 정책은 특권층과 인구의 격차를 증가 시켰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할 수 있는 극우 정당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으로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이전의 산업 노동자 계층을 위축시킨 사회적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문화적 변화와 이념의 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주의적인, 분열적인, 냉소적인 현실관을 확산시키도 있다.

유럽의 극우 성장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론적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대신에 전통적인 민주정치는 높은 재정의 이익에 순응했다. 그러므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부 사이의 변화는 경제 모델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단일 불변의 패턴에 대한 미묘한 변화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극우 정당들이 실제 민주주의는 손댈 수 없는 큰 경제 및 금융 기업들 앞에서 무력해 보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특권적이며 과점적인 정치 계층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성 다수당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않다는 비난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반대하여 극우 정당들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중개자 없이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 다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둘 것을 요구한다(Rodriguez-Aquilera 2014).

제 3 절 극우정당 성장의 요인

유럽의 극우 현상은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와 자주 관련돼 왔고 유럽에서도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설에 찬성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스페인의 경우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많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포퓰리즘의 정의와 개념적 구분에 대한 학문적 합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Paul Taggart(2000)의 말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다양한 표현으로 인해 특정한 개념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주권국가를 대신하여 반엘리트주의 담론이나 관행을 형성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Arias Maldonado, 2019).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두드러진다. 두 가지 동질적 분석 단위의 가정: 일반인과 엘리트; 둘 사이의 적대 관계; 일반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엘리트에 대한 폄하; 일반의지의 결정 매트릭스로 번역된 대중의 주권에 대한 생각 (Stanley, 2008, p. 102). 또한 학계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들을 추가하게 되었고, 이 용어는 또한 개인적, 당파적 이해관계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다른 정의 요소들로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둘러싼 조직, 반지성주의, 감정적인 소통 전략의 사용,

이상화된 조국과의 동일성, 외부의 위기나 충격과 관련된 그것의 에피소드적 성격, 도발, 양극화, 항의 등에 기초한 행동 레퍼토리가 있다(Arias Maldonado, 2019). 이 분석 단계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사용의 한계를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은 메시지의 감정적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언어에 대한 의존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 두려움 또는 원망의 감정 일으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Arias Maldonado, 2017).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위기로 인해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는 더욱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8년의 경제 위기와 스페인 양당의 수많은 부패 사례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스페인에서 등장한 신생정당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더 많은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생정당을 정의하는 특성과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특성 사이의 완전한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포퓰리즘의 결정적인 특성과 스페인 다수당이 가지는 특성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인과 언론 모두 이념 전쟁의 정치적 무기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Pía Lara, 2019).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정당을 정의함으로서 용어를 당파적 이익에 맞춰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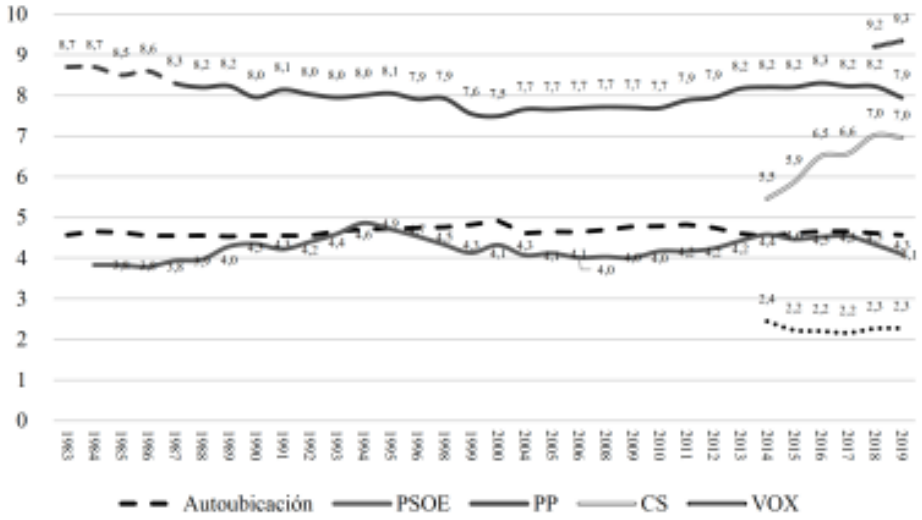
복스를 이념적으로 정의할 때 메시지의 현저한 감정적 특성과 같이 다른 유럽 극우 정당들과 공유되는 다양한 포퓰리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복스는 포퓰리즘의 핵심 정의 요소가 부족한데, 엘리트에 반대하지 않고 왕실로 대표되는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제시하는 점이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복스는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로 특징지어지는 토착주의 성향 때문에 극우파 정당으로 정의된다. Ferreira(2019)는 복스를 극우단체로 정의하는데, 복스의 이데올로기는 법과 질서의 가치;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본토주의); 사회 권위주의적 비전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스의 권위주의는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는 욕망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복스는 극우파의 가장 극단적인 요소들과 거리를 둔다. 또한 복스의 원주민 보호주의(Nativism)는 유럽의 타 극우당들과 차별화 되는 특성이다. 스페인에서 급진 우파의 대표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유럽의 타 극우당들과는 달리 정치 담론에 포퓰리즘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 복스의 담론은 포퓰리즘보다는 민족주의적이다. 둘째로, 극우정당들의 많은 대표자들이

더 넓은 유권자 기반에 호소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 경제적 가정을 흐리려고 노력하는 반면, 복스는 전통적인 가치나 신자유주의 경제 의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복스와 극좌파의 다른 신생정당들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와 연관 짓는 저자들이 많다(Criado Aguilera 2016, Vampa 2020, Lim 2020, Garido & Mora 2020, Montalbes & Cazorla 2020, 등).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계의 당파적 이익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논문에서는 복스의 선거 성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이러한 극우파의 등장은 스페인 국민의 이념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asal(2019)은 포데모스와 복스와 같은 '반체제' 정당의 득표수 증가가 각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Casal은 신생정당들의 의회 입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Montalbes & Cazorla(2020)는 다수당이 다소 중도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던 점이 급진적 성향을 띄는 신생정당의 등장을 격려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는 스페인 다수당이 다소 중도적인 성향을 띈 이유가 스페인 국민들의 중도적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분석에서 Montalbes & Cazorla는 CIS 조사 참가자의 응답 산술 평균에 기초하여 스페인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 스페인 정당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며 선형 그래프(표 8)에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신생정당의 의회 입성이 이념적 양극화를 야기했고 국민들의 다수당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중도성향을 띄던 정당은 민주중앙협회당(1977-1982년)였다. 민주중앙협회당은 현재의 다수당보다 더 실용적이고 덜 이념적인 입장을 표명한 정당이었다. 그 후로는 스페인 정당 체제는 국민당과 스페인 사회노동당으로 나눈 양당 체제로 이어졌다.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중도적 성향은 2015년까지 양당 체제가 유지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스페인 국민의 자가 정치적 이념평가와 현재의 다당제 현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데이터의 해석은 데이터의 불완전한 시각화를 생성한 오류를 동반한 것으로 본다. 즉, 산술 평균에 기초한 샘플이라는 것이다. 제 3 장, 제 1 절에서는 데이터의 시각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재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표 11.



출처: Montalbes & Cazorla 2020

2018년 복스가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의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스페인은 정부 기관에 극우 정당이 없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누렸다. 그 이전 스페인 내 극우정당 부재의 원인은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한 강한 스페인 지역주의가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Ko and Ki, 2013). 하지만, 2015년부터 진행된 정치적 변화를 보면 스페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스페인 정서를 민족주의적 정서보다 우선시 할 수 있고, 심지어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했을 때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Montalbes와 Cazorla(2020)가 설명하듯이, 궁극적으로 복스를 포함한 세 개의 신생정당이 2008년 경제 위기에서 발아한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스페인의 정치적 변화를 촉발시킨 첫 번째 사건이다. 그러나, 복스의 선거 발전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보다 훨씬 더 빨랐다. 몇몇 저자들은 복스의 짧은 정치 경력으로 이뤄낸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복스의 선거 지원을 위한 자극제로서 스페인 중앙 정부와 카탈루냐 지방 정부 사이의 영토 분쟁에 큰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Trunbull-Dugarte 2019; Reyero & Cordero 2020; Arroyo Menéndez 2020; Go 2020; Vampa 2020; Montalbes &

Cazorla 2020; Wheeler 2020). 유럽의 다른 극우 정당들과는 달리 불법 이민은 복스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언급되었지만(Trunbull-Dugarte 2019, Go 2020), 다른 저자들은 불법 이민을 복스의 선거 결과에 대한 결정 요소로 주장하고 있다 (Ferreira 2019; Reyero & Cordero 2020; Arroyo Menéndez 2020; Montalbes & Cazorla 2020; Wheeler 2020; Jeong, Joo and Jo 2021).

본 연구는 결론의 일부분에서 복스가 각각의 역사적 순간에 가지고 있던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복스는 정치적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매 순간 가장 효과가 높은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복스가 코로나19 위기를 당파적으로 사용한 것이 한 예이다. 이 위기에서 복스가 감금 반대 시위를 촉진함으로써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Wheeler 2020). 복스의 정치 행보는 그들이 집중했던 정치 이슈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바스크 지역의 독립 찬성 테러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로는 카탈루냐 독립에 초점을, 세 번째에는 불법 이민에 초점을, 현재는 페미니스트와 LGTBIQ+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복스의 적응력은 복스가 선거 지원을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중 어디에 더 큰 우선 순위를 두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해 복스가 다른 우파 정당과 같은 정치적 감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복스의 차별점은 타 우파 정당보다 급진적이라는 점이다 (Arroyo Menéndez 2020; Reyero & Cordero 2020).

2008년의 경제 위기는 국민당과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지속적 부패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불러일으켜왔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쟁이 열렸고, 그 결과 2015년 시우다다노스의 의회 입성으로 우파 정당들 간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복스는 선거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생성된 정치적 회의론과 정치적 경쟁의 새로운 영역을 이용했다. 복스는 이른바 정치마케팅의 틀 안에서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정치마케팅 전략을 통해 스페인 정치 소통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목표한 선거인단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치적 마케팅의 개념은 학술적, 저널리스트적, 그리고 물론 정치적 환경의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경우에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소통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정치적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통의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1965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Bernard Krief는 이 분야의 첫 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그의 일을 정치적 소통 대신 정치적 마케팅이라고 불렀다.

마케팅을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회사는 FMCG 회사들로, Unilever, Procter & Gabmble, Coca-Cola, Nestlé, Kraft Foods, Colgate Palmolive, 등이 있다. 이들은 대량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 역사적으로 대부분이 학문적, 사업적 관행의 관점에서 마케팅 분야를 선도해 온 미국에 설립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치적 마케팅의 목적을 득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Avraham Shama (1975), Harrop (1990), Jean-Marie Cotteret (1991), Miguel Santesmases (1992), Maarek (1995), O'Cass (1996), Teodoro Luque (1996), Newman (1999), Iñaqui Periañez (2000), Pinilla y Cerviño (2008), Luis Ángel Sanz de la Tajada (2008)가 포함된다. 이 저자들은 모두 정치 마케팅을 마케팅 분야의 전문화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정치 마케팅을 소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의 목표를 생각의 전달과 설득으로 설정하며 득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저자들로는 Kavanagh y Scammell (1995), Maarek (1995), Rey Lennon (1995), Lock y Harris (1996), Osvagwu (2008) y Pinilla y Cerviño (2008), 등을 거론할 만하다.

Avraham Shama는 1975년 《Applications of marketing concepts to candidate marketing》에서 정치마케팅이란 정치적 후보자와 아이디어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과 정치적 후보들의 마케팅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적인 개념이 있다고 덧붙인다. 이는 판매자와 후보자가 각각 구매자와 유권자의 표적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시키고, 태도에 영향을 주고,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분명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는 서비스 마케팅과 정치 마케팅이 시장 조사와 같은 유사한 도구를 활용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치적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서비스 마케팅 개념은 유권자 행동 영역에 소비자 행동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Martin Harrop(1990)은 마케팅에 대한 Kotler & Armstrong(1989)의 정의에 따라 마케팅은 조직과 환경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Harrop은 정치 마케팅 기법의 사용이

영국 선거에서 정치적 의사소통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칭찬했다. 더불어 저자는 정치 마케팅이 선거운동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소통에서 소통으로의 전환을 부추겼다고 결론짓는다. Harrop은 정치 마케팅이 언론 광고, 정당 정치 방송, 선거와 같은 홍보 활동의 조사뿐만 아니라 정당이 선거 시장에서 자신을 포지셔닝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Reyes Montes, O'Quinn Parrales, Morales and Gomez, and Rodriguez Manzanares (2010)는 'Reflexiones sobre la comunicación política'에서 정치적 소통의 내용에는 정치 기관들의 운영방식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기관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정치적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참여의 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Philipe J. Maarek(1997)는 수년 동안 프랑스 정치 소통의 명백한 세부 사항이 1990년 선거법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저자는 이것이 사실 프랑스 정치 및 정치적 소통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국화를 위장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이 사실이 주요 후보들이 제시하는 이슈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선택권을 좁힌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마케팅에 대한 평가에 덧붙어서 Aron O'Cass (1996)는 정당속에서 표현한 마케팅에 대한 개념, 운용, 경향을 분석한다. 저자는 마케팅이라는 학문적 분야 내에서 마케팅 개념이 이처럼 널리 호평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의식적으로 그 철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다. 그러므로 마케팅 개념의 철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철학이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마케팅이 그것의 구현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Julio Juárez(2003)는 정치적 마케팅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발견한다. 애초 저자는 선거행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발상이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 선거 결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저자는 유권자들의 기호와는 관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 마케팅을 통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선거 광고 제작의 목표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도록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 간주된다고 언급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치 마케팅의 수단과 그것을 사용한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모호하다고 결론짓는다.

Laura Reyero Simón & Rebeca Cordero Verdugo(2020)가 공동창조·협동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이른바 '정치마케팅 3.0'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2.0 모델을 발달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2.0 모델은 스페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스페인 다수당들이 정치마케팅 1.0과 관련한 전략을 연속적으로 이용했다. 다수당들은 SNS를 사용했지만 봉사자들을 얻거나 운영하거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Marketing Politico 3.0 (정치마케팅 3.0)'에서 Laura Reyero Simón y Rebeca Cordero Verdugo는 Laura Reyero Simón의 박사 학위 논문인 "La aplicación del marketing político 3.0. El caso del éxito de Podemos y Ciudadanos en las elecciones de 2014, 2015 y 2016 (정치 마케팅 3.0의 적용. 포데모스와 시우다노스의 성공 사례)"을 종합한다. Reyero가 쓴 박사 학위 논문이 특별상 초청을 포함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치 마케팅 3.0'에서는 복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한다. 복스가 창당 이후 2019년 총선 사전 선거운동 순간까지 사용해 온 전략과 계획을 총망라적으로 분석한다. 2018년 안달루시아 의회의 캠페인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캠페인이 복스가 공공 기관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것을 성공시켰다. 이런 분석 결과는 복스가 정치마케팅 3.0을 기반으로 발달하였고, 가장 악명 높은 미디어 중 하나인 대중 매체의 참여나 지원이 거의 없이 구축·성장해 포데모스와 시우다나스보다 더 발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신생정당이 개발한 정치마케팅 2.0, 3.0로 인해 대정당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저자는 신생정당의 동원 전략의 성공이 소셜미디에서의 바이러스화와 미디어 노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는 당원의 성장과 동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치 마케팅 3.0은 우려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마케팅 모델은 "왜곡"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과거 존재했던 내러티브를 이용한 과장되고 세분화된 메시지의 구성을 통해 국민, 즉 유권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스페인의 모든 정당들은 자신들의 연설에 포스트 트루스를 접목해

양극화, 급발달, 보이지 않는 적들의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 정당들이 조건 지은 메시지의 강도와 분량은 그들이 포착하고 싶은 유권자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Cordero & Reyero, 2021). 다만 본 논문을 통해 관찰한 바로는 정치마케팅 3.0 관행과 양극화 증가의 상관관계가 모호하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서 이념을 찾는 유권자의 증가가 관찰될 수는 있지만, 스페인 국민의 뚜렷한 양극화 추세를 나타내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표 3, 4).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계의 당파적 이익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스의 선거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없었기 때문에 복스의 선거 성공의 원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2019년 11월 총선에서 복스가 얻은 결과는 스페인 국민들이 가지는 이념의 양극화 추세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복스를 지지하게 된 요인은 정치적 이념적 요인보다 복스의 동원 전략에 영향을 마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 3 장 스페인 극우당의 2019년 11월 총선성에 성공의 이유

제 3 장에서는 복스의 정치적 성공의 요인에 대한 연구의 중심 분석을 제공한다. 제 1 절에서는 복스의 이념적, 그리고 제도적 기원을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CIS 조사에서 추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자가 이념의 평가와 정당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분석한다. 제 3 절에서는 정치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을 중심으로 복스의 정치 동원 전략을 분석한다. 제 4 절에서는 CIS 바로미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PTI와 주요 우파 정당 지도자의 LPI를 분석하고 BOE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에 국민당과 복스의 의석 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제 1 절 복스 기원의 역사적 배경

복스는 2014년 유럽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13년 12월 정치인, 군부, 국민당 동조자들에 의해 정당으로 등록되었다. 2014년 유럽 선거에서는 포데모스가 5명의 MEP (유럽 의회 의원) 이루어졌으며 복스가 얻은 244,929표는 의석을 얻는 데 약 1,500표가 부족했다. 2015년 스페인 총선거에는 58,114표를 얻었고 2016년 총선거에서는 이전보다 감소한 47,781표를 얻어 타 스페인 극우정당과 같이 복스 또한 정부 기관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복스 지도자인 Santiago Abascal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복스 사무총장 Javier Ortega는 "살아 있는 스페인(La España Viva)"라는 책에서 복스가 두 개의 전류의 합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이 두 개의 전류 중 하나는 DENAES재단으로 스페인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방어선에 근거를 둔 정치적인 이념, 독자적인 구조, 영토 동원을 가진다. DENAES 재단은 Santiago Abascal이 스페인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시민 사회로부터 회복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한 재단이다. 두 번째는 복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국민당의 전 멤버인 Alejo Vidal-Cuadras이다. Alejo Vidal-Cuadras는 20세기 말과 현재의 정치의 시작에 스페인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정치 경력은 두 시기에 두드러지는데, 첫 번째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카탈루냐 국민당의 원장 재임 기간이고, 두 번째는 그가 MEP로 재직할 때 이다. 그 후

그는 국민당을 떠나 2014년 복스를 공동 설립하였다.

하지만 복스의 기원은 설립 11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소르프레사 복스》(La Sorpresa VOX)라는 책에는 2003년 알라바 주 로이도 시의회 선거에서 국민당의 3명의 선출된 의원들의 지방 의원 입성을 수십 명의 바스크 민족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 언급되어 있다. 17명의 평의회 의원 중 2명만 시청에 들어갔고, 그 중 Santiago Abascal도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바스크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밀치고,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스의 현 지도자들의 인연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한다(Reyero & Cordero, 2020). 복스의 현 지도자들은 국민당에 환멸을 느끼고 가톨릭 신앙을 공유하며 처음부터 복스의 최전선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한다(Altozano & Llorente, 2018). 2013년 12월 6일,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가 파로 독트린을 통과시킨 후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DENAES가 소집한 시위가 열렸다. 그곳에서 Ortega Lara가 한 연설은 그가 했던 연설들 중 가장 감동적인 것들 중 하나였다. 이때 처음 몇몇 미래 복스의 멤버들이 만났으며, Santiago Abascal은 정당 설립을 격려 받았다. 며칠 후인 2013년 12월 17일, 복스가 설립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스는 ETA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한 반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고, ETA 피해자들의 행동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3년 10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파로 독트린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테러 조직원 몇 명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당시 아직 국민당에 속해 있던 Abascal은 국민당이 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이에 Abascal은 국민당을 떠나서 복스를 설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로 독트린의 실패는 복스의 생성에 대한 촉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ETA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자행된 테러리즘을 목격한 경험은 Santiago Abascal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의 정치활동 때문에 테러단체가 해왔던 가족들을 향한 협박 편지, 할아버지를 향한 경제적 갈취, 아버지의 사업을 향한 테러 등을 기억한다. 복스의 지도자 외에도, 몇몇 다른 복스 설립자들은 바스크 지방에서 ETA가 가한 테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미 간단히 언급했듯이, Santiago Abascal의 정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ETA 고위관료 죄수들의 석방을 촉진하는 파로

독트린을 2013년 적용했을 때였고 이로 인해 Abascal은 국민당을 떠나 복스를 설립했다. Santiago Abascal, Cristina Seguí, José Luis González Quirós, Ignacio Camuñas, Alejo Vidal Cuadras, Ivan Espinosa y José Antonio Ortega Lara의 도움으로 복스는 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복스의 정치 경력은 제한된 자원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스페인에서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처음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ETA에 납치되어 가장 오랫동안 감금되었던 Jose Antonio Ortega Lara에게 집중되었다. Ortega Lara의 정치 참여는 국민당 내부의 정치적 불일치를 계속 증가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다른 정치인들은 복스에 합류하기 위해 국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복스는 테러 외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성 이념, 불규칙한 이민, 독립 운동, 심지어 무기 소지 논쟁과 같은 강력한 이념적 우려과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공공 의제에 도입하려고 했다. 복스는 경제, 고용, 교육, 건강 또는 연금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왔던 문제들을 제쳐두고 있다. 따라서 복스의 정치 행보는 그들이 집중했던 정치 이슈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바스크 지역의 독립 찬성 테러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로는 카탈루냐 독립에 초점을, 세 번째에는 불법 이민에 초점을, 현재는 페미니스트와 LGTBIQ+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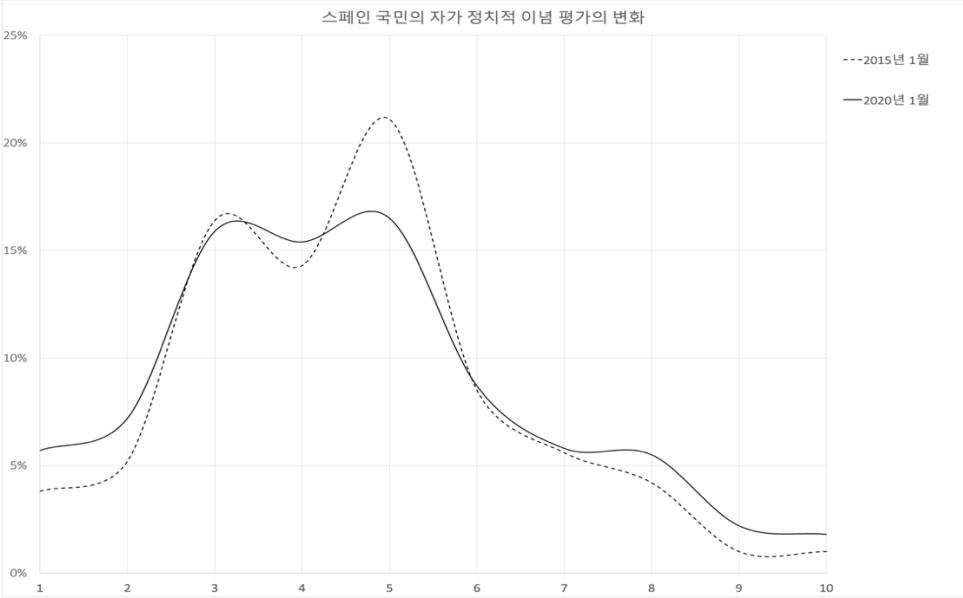
제 2 절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 변화

2018년 복스의 안달루시아 의원 입성은 스페인 예외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러한 당 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2008년 경제 위기에 근거를 두며, 반-바스크 독립 찬성 테러리즘과, 카탈루냐 분리주의, 이주 위기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스페인 내 스페인 인구의 자가 정치적 이념 평가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 야기되고 극우에 대한 투표에서 의인화된 변화가 있었는지 자문해 알아본다. 시민들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가까운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가 결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복스의 정치 경력이 스페인 사람들이 나머지 정당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가치가 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스페인 시민들의 정치적 자가 이념 평가(SPI)와 스페인 시민들의 스페인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라(PPI)는 두 가지 변수를 분석한다.

Montalbes & Cazorla(2020)가 수행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 국민들의 SPI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스페인 국민들의 저자가 제시한 표현은 국민들이 정치적 스펙트럼에 어느 영역에서 자신의 이념을 위치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는 수치는 산술적 평균으로 종합되는 결과로 SPI의 형태는 스펙트럼의 중도에 위치하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산술 평균을 통해 합성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대답 비율을 나타내는 y축으로, 그리고 극좌를 나타내는 1에서 극우를 나타내는 10까지로 나누게 된 x축으로 그래프를 만들었다(표 2).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알아볼 수가 있다. 첫째, 가장 높은 정점이 중도 영역에 해당한다. 둘째,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적 좌파 영역에서 자신을 식별한다. 셋째, 극우와 가까워질수록 국민의 비율이 거의 0%로 감소한다. 네째, 정치적 양극화가 실시하는 경향이 존재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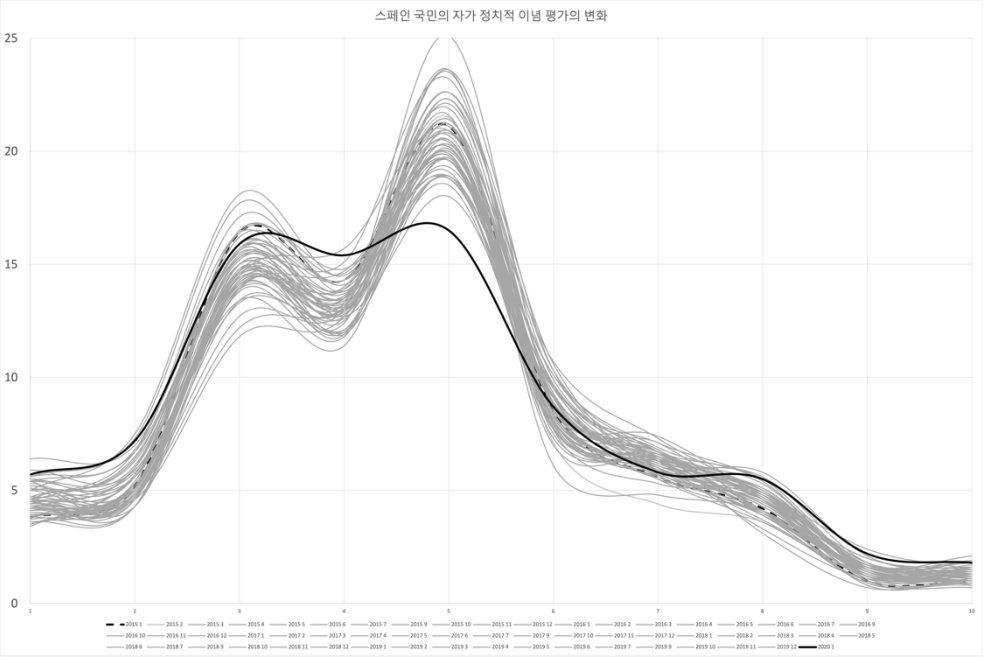
표 2. SPI (2015 & 2020)



출처: CIS 바로피터

Montalbes & Cazorla (2020)가 주정했 듯이 스페인 국민의 정치적 이념이 정치적 중도에 위치한다. 이 그래프의 정점의 변화는 2015년 1월과 2020년 1월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표시된 정점의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반적인 병동 중 하나다. 이를 입증하여 표 9는 스페인 국민들의 SPI와 관련한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모든 CIS 바로미터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만 Montalbes & Cazorla (2020)의 CIS 바로미터의 정보를 산술 평균으로 표시한 방법을 통해서 위의 주장과 동의하지만 스페인 국민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한 중요 정보가 표시하지 않다. 이는 스페인 국민의 대다수가 중도와 좌파 영역에 위치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스페인 국민들이 대다수가 정치적 중도에 위치한다는 주장은 스페인 사회의 정치적 사실에 대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 12. S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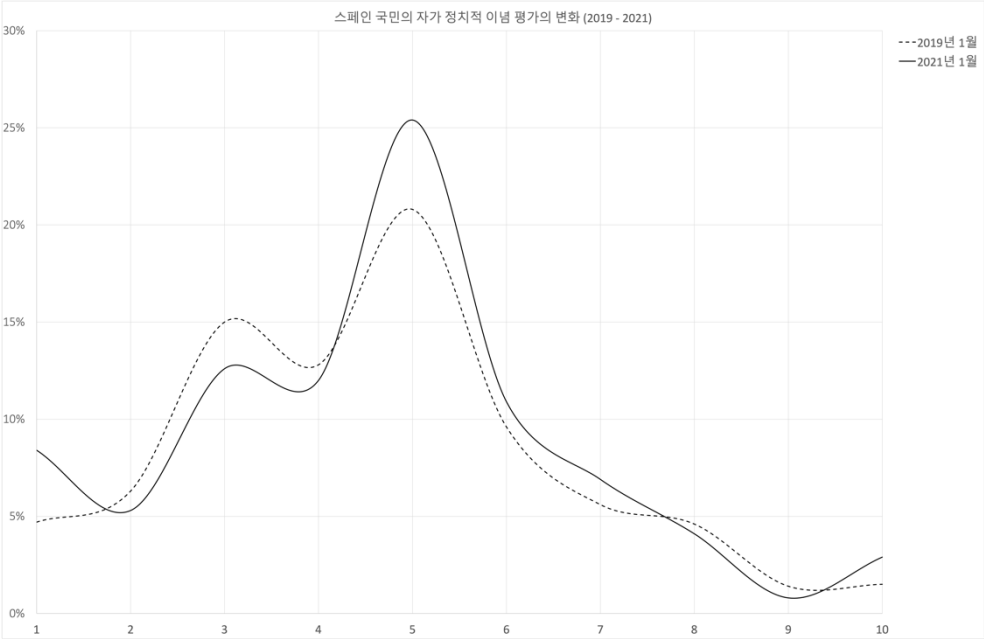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본 연구는 스페인 국민들의 SPI의 상대적 연속성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SPI 지표에서 생산된 변화가 스페인 정치사상 처음으로 극우정당의 의원회에 입당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의미를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체 정치적 스펙트럼의

영역 중 극우에 해당하는 영역이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극우의 구역은 동일하게 낮은 수치를 중심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0%와 3% 사이의 국민의 비율을 포함하는 극우의 영역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4%와 7% 사이의 국민 비율을 이어지는 극좌의 영역을 포함하여 스펙트럼의 나머지 영역보다 매우 낮다. 그러나 2020년(표 10) 데이터를 추가하면 스펙트럼의 극양쪽에서 SP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본다. 이 사실이 복스가 의회에 입성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복스의 존재는 스페인 시민들의 SPI의 변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아직 시사하지는 않는다.

표 13. SPI (2019 & 2021)



출처: CIS 바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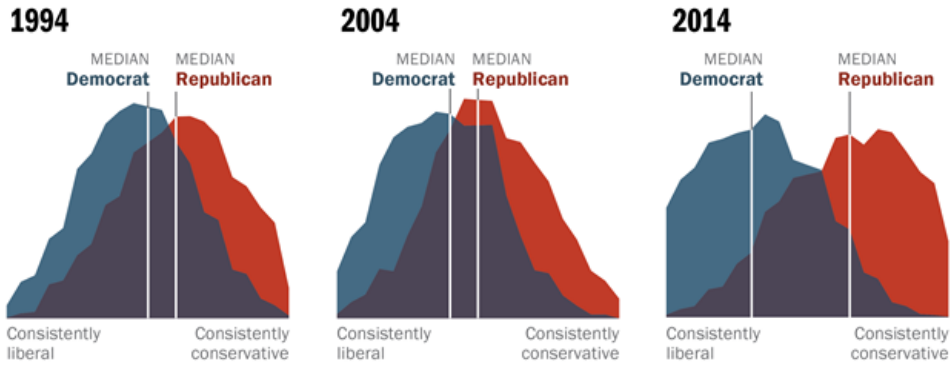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양극화와 관련해서 스페인 SPI는 높이가 가까운 정점이 두 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파와 좌파로 나누게 된 양극화를 표시하는 특징이 아직 없다. 양극화의 분명한 예는 미국 정치 환경에서 도출된 유사한 자료에서 양극화를 잘 표시하는 모양을 찾을 수가 있다 (표 11). 스페인 국민들 SPI의 그래프는 미국의 경우처럼 높이가 비슷한 두 정점 사이에 점진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모양이 없다. 또한 스패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민의 자가 이념 평가를 큰 변화가

없이 개발했다. 따라서 스페인 정치 상황에서 분석한 기간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스가 의원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리고 정부 기관을 운영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전채도 증가도 없었다고 결론한다.

표 14.

Democrats and Republicans More Ideologically Divided than in the Past

Distribution of Democrats and Republicans on a 10-item scale of political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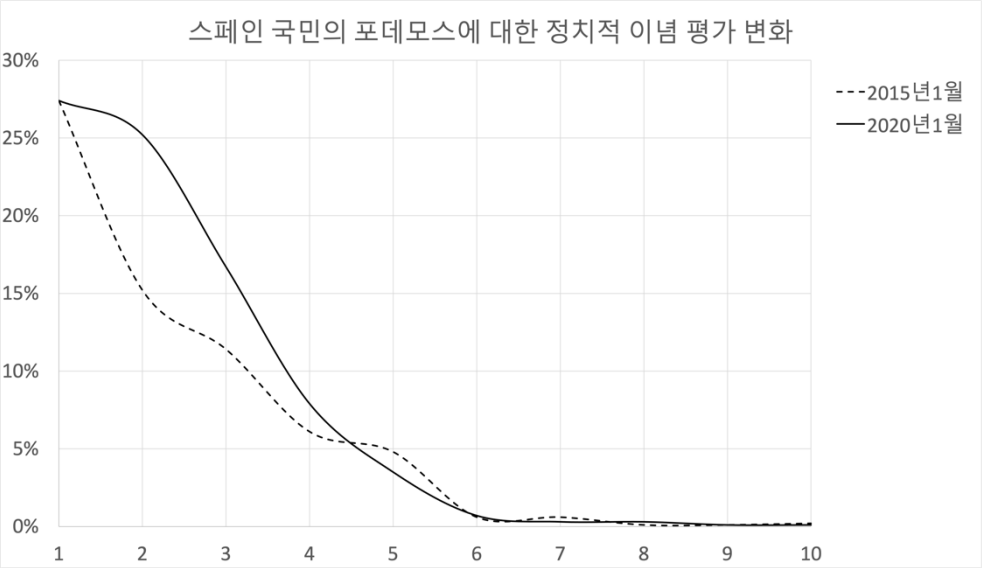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14 Political Polarization in American Public.

CIS 바로미터에는 국민들의 자가 정치적 이념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추가해서 국민들이 스페인 정당들의 정치적 이념 평가(PPI)도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 국민들이 정당을 어느 영역에서 식별하는지 분석하면 복스의 의회 입성에서는 매우 분명한 차별적 요소가 본다. 스페인 국민들이 포데모스 (표 12), 스페인 사회노동당 (표 5), 시우다다노스 (표 13), 복스 (표14)의 PPI에 큰 변화가 없지만 복스의 의회 입성 이후에 국민당 (표 6)에 대한 PPI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다. 2018년까지 국민당의 PPI는 두 개의 모집단 그룹이 있었음을 표시했다. 하나는 우파 구분의 중도에 위치하며, 다른 하나는 극우 구분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국민당은 거의 전적으로 스펙트럼의 우파 영역의 중도에만 있는 정당으로 식별되며, 현재 복스가 점유하고 있는 영역인 극우 정당으로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다. 이는 스페인 장당들의 PPI를 통해서 복스의 분명한 영향력을 본다. 복스가 스페인 시민들이 우파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국민당으로부터 어떻게 이 정치적 영역을 빼앗았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복스와 국민당의 이념적 영역 경쟁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데모스와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경우를 간단하게 분석과 비교하기가 더움이 된다. 포데모스가 복스와 비슷하게 CIS 바로미터에서 생겼을 때부터 큰 변화가 없이 극좌 구역에서 연속하게 식별되었다. 다만, 복스와 국민당의 경우와 달리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극좌 영역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포데모스가 의회 참여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스페인 사회노동당에 대한 이념 평가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파의 신생정당이 좌파의 신생정당보다 스페인의 다수당에 다르게 여향을 시켰다고 결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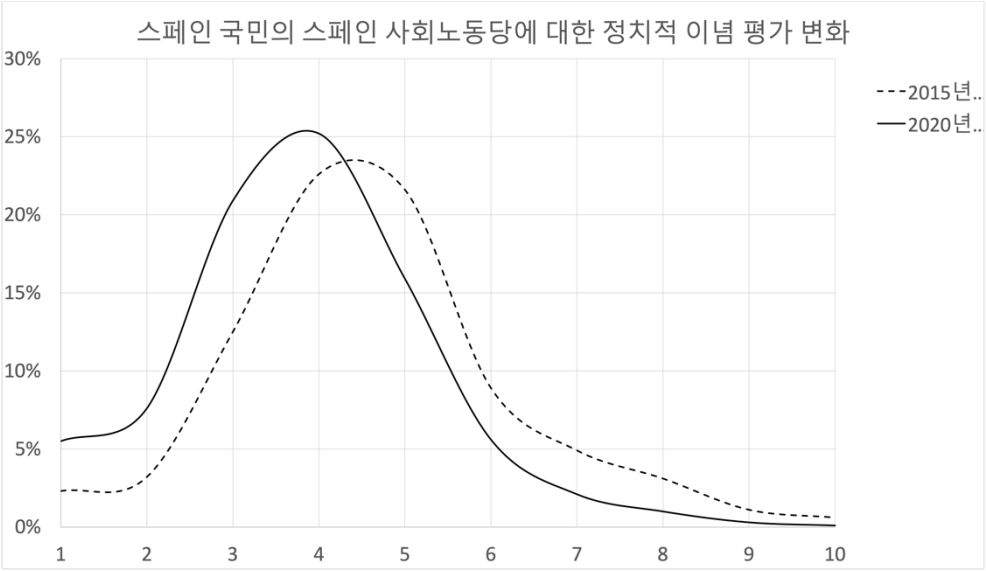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국민당에 대한 이념 평가의 변화는 위와 다른 해석으로 설명하기가 가능할 구사 있다. 이는 국민당에 대한 이념 평가가 앞서 언급한 영역이 변경되는 대신 우파의 영역은 극단으로 더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본 해석을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가 된다.

표 8. 포데모스의 P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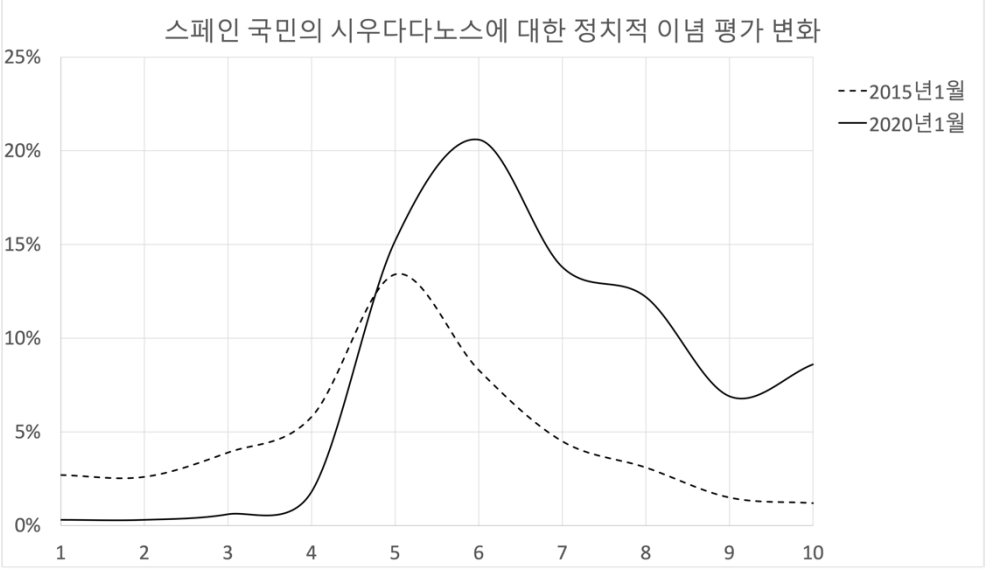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표 5.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P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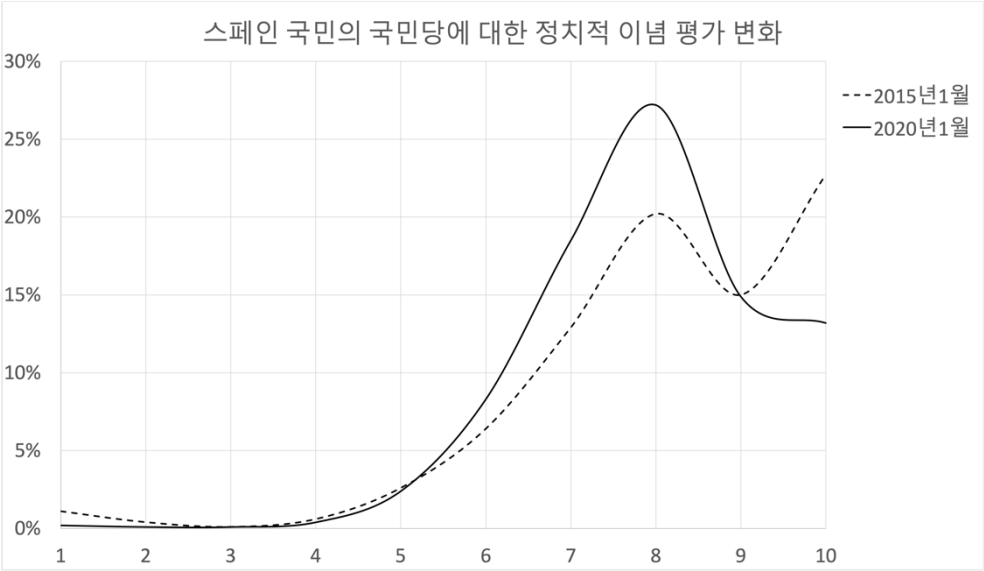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표 9. 시우다다노스의 PPI (2015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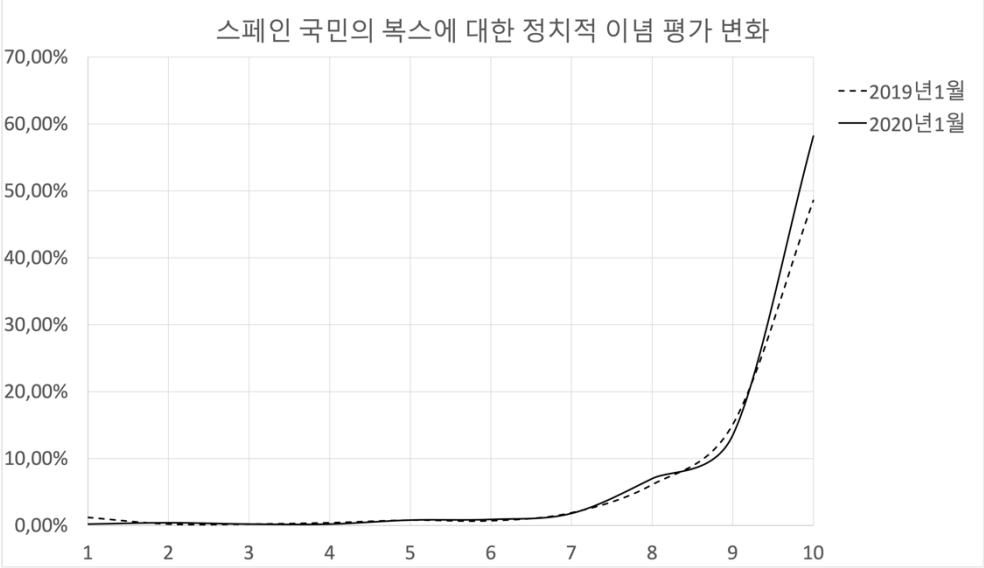
출처: CIS 바로미터

표 6. 국민당의 PPI (2015 - 2020)



출처: CIS 바로미터

표 10. 복스의 PPI (2019 - 2020)



출처: CIS 바로미터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자가 이념에 대한 평가(SPI)에 의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복스 유권자들은 복스가 존재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이념의 평가(PPI)에 의하면 국민들의 우파 정당들에 대한 평가는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스페인 정당들의 동원 전략과 우파 정당들의 경쟁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한다.

제 3 절 복스의 동원 전략

복스와 남은 스페인 정들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동원의 전략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스페인 의회에 참여하게 된 복스가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와 같은 성공한 신생정당들의 동원 전략을 사용하고 이 동원 전략을 확장 시켰다.

많은 소식통들은 복스의 설립자들이 획기적인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동의한다(Reyero & Cordero, 2020). 포데모스와 시우다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정당"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면서 다른 정당들과 다른 이름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복스라는 이름은 짧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복스의 소식통에 따르면, 만들어진 이미지는 매우 강력했다. 어떤 역사주의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중립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는 포데모스가 사용한 전략이기도 했는데, 포데모스는 과거의 상징과의 연관성을 피하고자 했다. Ivan Espinosa de los Monteros는 Altozano, G. & Llorente, J., 2018에서 복스 로고가 V의 '틱' 모양에 의해 "선택"하도록 초대한다고 덧붙인다. O는 다른 당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초대하는 열린 입을 나타내고, X는 그것의 모양에 의해 기독교 뿌리에 언급하는 것을 나타낸다.

복스의 통신부 차관인 Manuel Mariscal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공동 창조가 복스의 통신 전략의 기본 요소라고 주장한다. 복스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6명의 직원으로 스페인 의회에 12석(10.97%)을 얻었다. 복스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돈, 아이디어, 창의력을 주었다. 바다호즈의 복스 부대표인 Victor Sánchez del Real이 복스가 만들지 않은 밈(Meme)도 많고 영상도 많이 등장했다고 보고했다. Reyero & Cordero는 복스의 안달루시아 건거의 성공에 영향을 준 5가지 근본 요인이 있었다고 했다. 첫째, Santiago Abascal과 Javier Ortega Smith의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동원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고 조언을 받도록 했다는 복스 지도자들의 태도였다. 두 번째는 복스 지도자들의 의회 및 경영의 환경과 관련하는 전문 인력이다. 세 번째 요인은 공동 활동을 하는 자원 봉사자들의 동원이다. 네 번째는 정치적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의 창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그러므로 복스의 경우는 O'cass(1996)가 지적한 것과 달리 채용된 정치적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복스의 지도자들이 정치 마케팅을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 예로는 복스 마드리드 부의장이자 빌라비시오사 데 오돈 시의회의 참의원이었던 Maria Ruiz의 말을 빌리자면, "이 당을 앞서 언급한 시의회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세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복스 자원봉사자들의 주도이자 노력이었다."라고 말했다 (Altozano G. & Llorente J.,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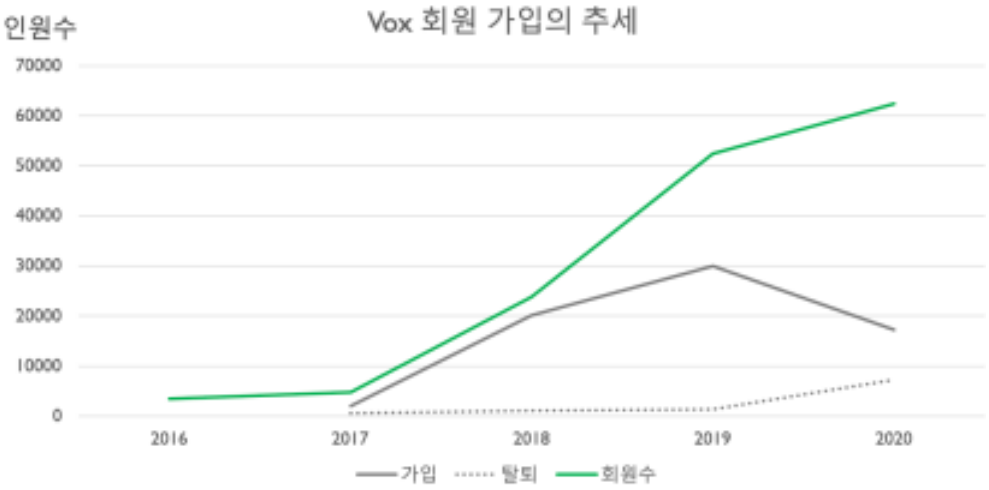
복스의 정치 경력이 시작되는 동안, 몇몇 회원들이 홍보 캠페인을 위해 여러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 부비서 Sanchez del Real은 직장을 그만두고 복스의 소셜 네트워크 소통과 자원 봉사자들의 조정에 전념했다. 주류 언론들은 보수, 자유,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마이너 텔레비전 채널인 Intereconomia를 제외하고 복스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이러한 언론의 관심 부족에 직면하여 악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행동들이 조직되었다. 그때의 복스 브랜드를 알리고 이를 일련의 가치와 연관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선거에서의 성공 형태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복스는 스페인의 각 문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공격적 감동적인 태도를 나타내려고 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항의하는 의미로 발코니에 스페인 국기를 걸어 시민 동원이 일어났다. 그 기간은 카탈루냐의 반독립을 정치적 담론의 중도로 삼은 복스에 의해 이용되었고 스페인의 통합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동원 전략에 포함했다. 계열사 수 증가(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복스가 더 큰 지지를 받기 시작한 그 순간이다. Panel Confidencial [③] 에 따르면 복스 유권자의 90%가 광역자치주 현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복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③] 온라인 신문 El Confidencial이 분기별 투표 추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스페인 문제에 대한 정부 관리 평가 등을 게재하는 IMOP Insights의 도움을 받아 조립한 패널이다.

요인은 카탈루냐가 주도하는 영토 갈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2018년 10월 복스가 조직한 첫 대중 행사가 열려 승리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행사가 열린 장소인 팔라시오 비스타레그레(Palacio Vistalegre)는 몇 년 전에 포데모스가 자신을 봉헌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티켓이 팔려야 그 행사가 성공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고 모든 티켓은 행사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다. 이 행사는 "La España Viva pide elecciones"와 "Viva España, Viva el Rey, viva la Policía Nacional, viva la Guardia Civil y Viva el Rey" (스페인 만세, 국가 경찰 만세, 시민 경호 만세, 그리고 국왕 만세)라는 슬로건으로 특징지어졌다. 그 결과로 복스는 텔레비전 뉴스의 주요 뉴스가 되었다. 그후에 2018년 12월 2일, 복스는 안달루시아 선거에서 11%인 395,978표를 얻었다. 따라서 복스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거부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순간과 이전에 행했던 힘든 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다.

표 15.



출처: Vox

또한 복스가 안달루시아 의회 선거에서 얻은 성공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불법 이민에 대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복스는 El Ejido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집단이었다. 인구 9만 명에 가까운 El Ejido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민자 인구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El Ejido는 알메리아 도에 위치해 경제적 이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노동력 배출자로서 그리고 현재 주로 집중적인 농업 분야에서 고용되기 위해 오는 국내 및 국제

이민자의 수령자로서 일하고 있다(Checa, Garrido, Olmos 2009). 이 지역은 국민당의 득표율이 47.16%에서 26.91%로 무너진 뒤 29.51%를 얻어 복스의 승리를 가장 먼저 경험했다.

스페인 세 개의 신생정당이 스페인에서 800만 표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큰 기회를 보았다. 2018년 밀레니얼 세대의 85% 이상이 스페인에 깊은 개혁이 필요하며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젊은 인구들 사이에 정치적 회의론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이러한 징후는 인구의 이 부문을 신생정당들의 우선 목표물로 만들었다. 2016년 6월 총선에서 18~34세 인구 집단 내에서 투표한 국민은 61%에 불과해 전국 평균(70%)보다 9점, 55세 이상 집단(79%)보다 18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④]. 게다가, 두 다수당인 국민당과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2008년 경제 위기 동안 젊은 유권자의 절반을 잃었다. 이 자료는 신생정당들이 기권주의 밀레니얼 투표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한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스페인 선거를 계기로 청년층 표심이 크게 늘었다. 2008년 두 대정당에 투표한 젊은 유권자의 비율은 56%였지만, 2015년 12월 20일 양당 파적 투표율은 그 연령대 유권자의 20% 미만이었다.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는 국민당와 스페인 사회노동당을 버린 젊은 유권자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신생정당들이 이 유권자 분파를 끌어들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2016년 6월, 젊은 투표자의 상당 부분이 기권으로 돌아갔고, 그들 중 많은 수가 2015년의 희망을 잃었다. Metroscopia는 젊은 층의 정치적 불만족도가 노인층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청년 층은 실업의 압박으로 임금 수입이 줄어들었다. 구매력 상실은 청년실업 증가와 가뜩이나 위태로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맞물려 현재 제도에 대한 비판의 상황을 초래했다. 스페인의 밀레니얼 세대는 정치, 경제, 노동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가 포착한 기회도 복스가 잡았다. 복스의 근본적으로 다른 메시지는 또한 젊은 세대의 표를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다. 이는 마드리드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조직한 데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이 행사는 매진되었고 Abascal이 DJ를 맡았다. 또한 복스는 보다 보수적인 이념

---

④ Metroscopia가 실시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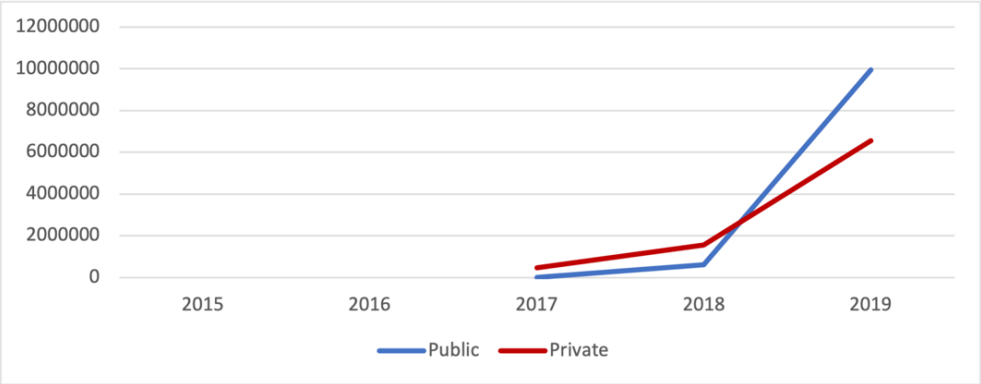
지향의 대학생 생활시설과 사립 고등교육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사실은 복스의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언론, 그들이 다니는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Manuel Mariscal 현 커뮤니케이션부 차관은 Reyero & Cordero 2020에서 복스가 규칙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복스는 더 이상 젊은 지지자들에게 무엇을 투표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스에 투표하도록 친척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데모스나 시우다노스와 달리 복스는 상대방이 버렸던 사회적 부분, 즉 자신들이 무시당하거나 분명히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그 중에서 농촌 환경의 상당 부분의 사냥꾼들의 경우가 눈에 띈다. 2018년, 10만 명의 연합 사냥꾼과 25만 명의 사냥 면허가 있었는데, 이는 선거의 이점을 더 얻기 위한 매우 큰 관심사 분야이다. 사냥 분야 외에도, 그리고 농촌 분야와 관련하여 복스는 또한 대부분의 다른 정당들에 의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던 투우 분야도 있었다. 복스가 2018년 안달루시아 선거에서 총 39만5,978표를 얻은 점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으로 사냥과 투우 부문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2019년 2월 CIS 바로미터에 따르면, 복스 유권자는 35세에서 44세 사이의 남성, 고등학교 학업을 가진 거주자 10만명 이하 도시에 거주하며, 구 중산층(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부)과 전 국민당 또는 시우다다노스 유권자에 속한다. 다만 CIS 바로미토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구중산층 유권자가 우세하지만 복스의 유권자 프로필에는 다양성이 크다. 또한 비슷한 비율로, 새로운 중산층뿐만 아니라 상류층과 중상류층에 속하는 유권자들이 눈에 띈다. 그들은 복스가 가장 적은 표를 얻는 경제 부문인 미숙련 서민 유권자들이 뒤따른다. 남성 유권자는 여성 유권자보다 두 배나 많은데, 이는 동물주의 정당(PACMA)을 제외하면 다른 정치적 형성이 다가오지 않는 불균형이다. 반면 35~40세에 가장 가까운 연령층은 18~24세다. 마지막으로, 복스는 2,000명 미만의 거주자 중에서 백만 명 이상의 거주자(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발렌시아, 세비야, 사라고사, 말라가와 같은 40만 명 이상의 거주자를 가진 도시에서는 큰 선거 지지를 얻었다. 복스는 국민당와 함께 가장 덜 도시화된 정당 형태이다.

안달루시아 캠페인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선거 운동 자금을 마련할 목표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은 100만 유로를 모금하기 위해 복스의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시간 만에 겨우 벌써 7만 유로를 모금했고 72시간 전부에 20% 이상을 모금했다(Riaño, 2019; Roma, 2019). 이와 관련해서 민간 기부가 어떻게 첫 해 동안 복스의 주요 수입원이었는지를 표 16로 관찰할 수 있다. 이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요점은 그들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왓츠앱 그룹들이다. 이메일을 통해도 및 관역자치주로 구성된 그룹들 기반으로 한 신속한 전파가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복스가 많은 청중에게 도달했다 (Reyero & Cordero, 2020). 더불어 복스는 복스가 SNS으로 공유한 전화 번호로 연락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뉴스 전파 목록을 만들었다. 이러한 왓츠앱 그룹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정교한 메시지가 출시되며, 원하는 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파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 (Cid, 2018). 게다가, 왓츠앱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내용의 대량 전달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스는 추종자들에게 텔레그램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Martínez, 2020).

표16.



출처: Vox

정치 마케팅 3.0의 실천에 존재하는 요소인 포스트 트루스(Cordero y Reyero, 2021)는 복스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히 존재한다(Reyero y Cordero, 2020). 이러한 메시지는 청중을 빠르게 관통하고 이를 통해 확산의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짧고

명확하며 효과적이다. 복스는 악명을 얻기 위한 강력한 제스처를 포함한 서사시적인 문학 장르의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개발했다. 유명한 예는 안달루시아 유권자들에게 연설된 광고 영상으로, 반지의 제왕 영화의 사운드트랙에 나오는 특징적인 노래가 재생되는 동안 Santiago Abascal이 많은 말을 타는 사람들 옆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Vox, 2018) (그림 6). 이 동영상은 바이러스성이 되고 스페인의 모든 언론이 이를 반행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안달루시아 광역차지주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분야인 안달루시아 농촌 분야를 공략하기 위한 비디오의 분명한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동영상은 사냥꾼이나 토지 소유자의 시골과 같은 면모를 가진 수많은 말을 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투우사 José Antoion Morante de la Puebla가 Abascal과 함께 말을 탄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복스의 통신 구성은 미디어 소비와 SNS의 순간성과 속도에 의해 정당화되며, 특정 정치적 주제, 인물 및 사건에 대해 이전에 통합되었던 상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전략은 앞으로 메시지 내용의 불일치가 드러날 때와는 달리 당의 메시지에 전념하는 시간과 악명을 우선시한다.

복스 정치 브랜드의 구축은 복스가 전통적인 미디어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원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Reyero & Cordero, 2020, p. 199). 주류 언론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복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거나, 비판의 목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정치마케팅 3.0 환경에서는 기존 미디어의 사용이 낮은 반면에 디지털 환경의 중요도가 가장 크다. 포데모스나 시우다노스의 경우에 라섹스타와 같은 많은 시청자를 가진 텔레비전 채널와 엘문도와 같은 큰 신문이 그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복스의 경우 라섹스타가 20%에 도달한 것에 비해 시청률이 매우 낮은 인터레코노미아 채널에서만 7%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 복스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특히 텔레비전에서 그들의 출연에 항상 매우 신중했다. 반면에 포데모스와 시우다노스는 이러한 매체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최고 시청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더욱이, 이 새로운 정치 계층의 존재는 그들이 개입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Fernádez, 2018). 그러나 전통적인 미디어는 점점 덜 소비되고 있는데, 젊은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환경의 우선 순위를 더욱 장려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언론의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 그 분명한 예이다. 디지털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 매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익숙한 젊은 멤버들과 함께 정치 분야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복스의 커뮤니케이션 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전 고문인 Steve Banon과의 자문 관계까지 인터넷 검색에서 "복스" 브랜드를 다른 스페인 정당들보다 앞섰다 (Mora, 2021, April 13).

정치 캠페인에 대한 복스의 감정적 접근은 국민당의 제도적 접근과 대조된다. 마케팅 3.0 전략이 포함하는 가짜 정보의 사용이 복스의 동원 전략을 정의하는 반면에 국민당은 자유와 관련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국민당의 지도자에 집중하며 복스보다 더 전통적인 전략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의 예로 그림 4와 그림 5의 비교로 잘 표시된다. 그림 4는 복스가 2021년 마드리드 시청 선거 캠페인에 퍼뜨린 포스터였다. 이는 복스의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백인 할머니와 얼굴과 머리카락을 덮는 옷을 입는 흑인 사이에 '미성년자 한 명은 한달에 4천7백유로이며 당신의 할머니의 연금은 4백2십6유러다'라는 이 광고의 더 큰 글자로 중요 메시지가 나온다. 중요 베시지 아래에는 '복스, 안전하게 투표하시고 마드리드를 보호해라'라는 이 캠페인의 슬로건이 나온다. 나중에 밝혔음에 따라서 복스가 국민에 감동적인 영향을 시키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사용한 여러 경우 중에 하나였다. 반면에는 국민당은 국민당의 포스터는 감동적인 요소가 없고 깔끔한 거의 정치적 메시지가 없는 포스터를 사용했다. 감정적인 정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대신에 '자유'라는 말 옆에 Ayuso라는 마드리드 시의 국민당 지도자가 나오고 지도자와 '자유'라는 말 사이에 '내가 Ayuso와 함께'라는 슬로건이 나온다.

그림 4.

출처:

그림 5.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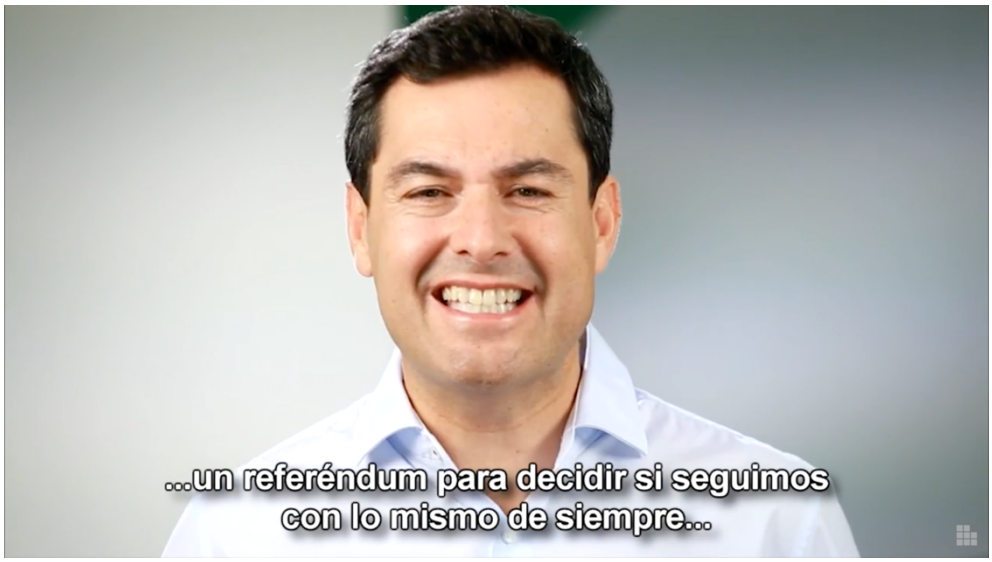
복스와 국민당의 동원 전략 차이를 표시하는 예를 추가해서 복스와 국민당의 2018년의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의회 캠페인 동영상이다.

이번에도 역시 복스(그림 6)는 감동적인 접근하며 국민당은 제도적인 접근한다. 위에 설명했 듯이 그림 6은 안달루시아의 농촌 분야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 목표로 복스의 지도자가 농촌 분야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반지의 제왕'라는 영화의 음악이 나오면서 말을 같이 타는 것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없고 영상의 마지막 몇 초에만 '스페인에 위한 안달루시아'라는 복스의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의회의 슬로건이 나온다. 반면에 국민당(그림 7)의 캠페인 동영상은 안달루시아 국민당의 지도자만 나오며 오랫동안 안달루시아 의회의 권력을 가진 스페인 시회노동당과 달리 운용할 약속하면서 역시 국민당의 지도자의 이미지에 집중한다.

그림 6.

출처: Vox YouTub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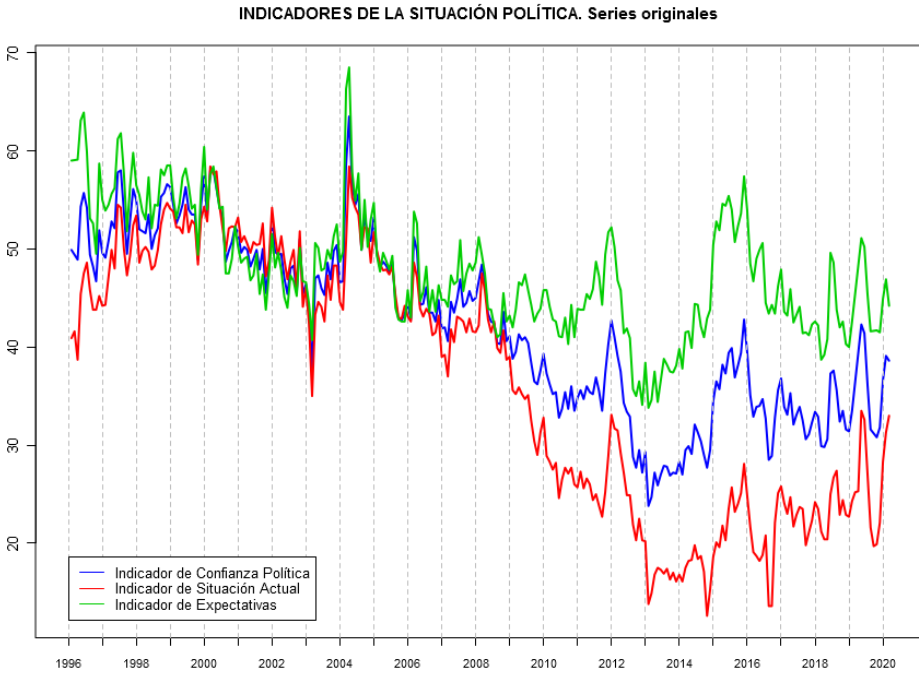
출처: PP YouTube

복스는 정치마케팅 3.0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동원 전략을 통해 나머지 정당들과 차별화를 입증했다. 정치마케팅 3.0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더 넓은 연령 투표자의 목표 그룹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제안; (2) 3.0 정치 마케팅 환경의 기본 전략의 집중적인 사용: 공동 창조와 협업 경제; (3) 명성을 얻기 위한 강력한 제스처를 포함한 서사적 서술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개발; (4) 전통적인 미디어의 지원 없이 소셜 미디어만을 통한 브랜드와 메시지의 구축.

제 4 절 스페인 우파의 경쟁력

이미 언급했듯이,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신생정당인 포데모스, 시우다노스, 복스가 생겨난 토대가 되었다. 정치에 대한 신뢰 (PTI)에 대한 영향은 이러한 효과(표 17)를 분명히 나타낸다. 이 사건은 정치적 신뢰의 지표의 변화와 일치한다. 정치적 기대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5년, 2017년 현재 정치상황 지표는 절대적 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스페인 국민들이 다수당들이 주도하는 스페인의 정치 발달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미래 정치 상황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다.

표 17. 스페인 PTI (1996 - 2020)



출처: CIS 바로미터

우파 정당 간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당 지도부의 역사적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José María Aznar가 국민당 지도자로 된 스페인 초대 대통령이었다. Aznar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두 개의 연속된 입법부를 통치했다. Aznar 정부는 경제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지지했으며, 국가 지출을 줄이고 전략 부문에서 여러 국영 기업을 민영화했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가는 마스트리히트에서 정한 수렴 기준을 충족시켰고, 스페인은 유로화를 통해서 새로운 통화로 보유할 국가 그룹에 가입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의 정부가 스페인 사회를 동요 시킨 Miguel Angel Blanco의 ETA 암살을 다루어야 했다. Aznar 정권의 또 다른 특징은 나토와의 화해였다. 그의 두 번째 임기는 2000년 선거에서 얻은 절대 다수로 특징지어졌다. 경제는 높은 비율로 계속 성장했고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졌다. 국제관계 수준에서 스페인은 특히 J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더 가까워졌고, 결국 소위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지했다. 2002년 동안 그의 정부는 침몰한 프레스티지 유조선 참사를 다루어야 했는데, 그 재난은

그것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곧 닥칠 이란에 대한 유엔의 지원 없이 그리고 스페인 여론에 의해 널리 거부된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몇 나라에서 증가하였다. 스페인은 침략 전후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지지자였으며, 스페인은 압도적인 인구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Aznar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Mariano Rajoy로 대체되었다. Rajoy는 2011년 국민당이 절대 다수로 승리함에 따라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포되었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발렌시아, 마드리드, 갈리시아의 국민당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부패 음모, 이른바 구르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당 내 여러 피고인들이 드러났다. 이 위기 동안, Rajoy는 비판적이지 않은 반응 사이에서 흔들렸고, 자신의 그룹의 어떠한 불규칙한 자금 조달도 부인했고, 피해와 회피, 권위의 제스처를 지연시키고 상황을 통제했다. 이 전략의 위험성이 작지 않지만 국민당이 시, 지역, 총선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성과를 거두었다.

Rajoy의 집행권력이 구성되자마자,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예산 적자를 통제하고, 여러 종류의 세금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Rajoy의 선거 공약이 곧바로 깨지면서 이전 정부의 조정 정책을 이어갔다.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는 2012년 2월 고용부 장관이 설계하고 정부가 승인한 노동 개혁이었다. 노동개혁은 총파업을 선언한 노조에 의해 거부되었고, 7개월 후인 2012년 유럽 총파업이 뒤따랐다. 2012년 9월 25일, '의회를 둘러싸자(25S)'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의원을 다시 개최하기 위해 상징적인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결국으로 64명이 부상하고 35명이 체포되는 장렬한 전투로 끝났다.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졌다. 동시에,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기 없는 많은 조치들을 시행했다. 공공지출 삭감; 공무원 급여 동결; 공무원 시험 중단; 최저임금 동결; 정당과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이 이루어졌다. 연금의 경우는 그전의 정부가 추진했던 동결 조치와 차별화하기 위해 최소 1% 인상이 결정됐다. 이러한 조정 정책은 2008년 이전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경제 위기의 두 번째 불황을 야기하는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경제 불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국민당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 실업률이 100만 명 증가하게 만들었다. 2011년 12월 실업자 수는

5,273,600명으로, 2013년 3월 실업자 수는 6,202,700명으로 27.1%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7.22%였다. 2012년 4월, 정부는 교육 및 의료 지출에 100억 유로의 추가 삭감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문으로부터 항의가 제기되었다. 6월 26일, 보건부는 의료 공동 지급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민들이 구입한 약 값의 비율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퇴직자들이 처음으로 약값의 10%를 부담해야 했다. 2012년 5월 22일,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교육 총파업이 일어났다. 불과 사흘 뒤인 5월 25일, 2주 전에 국유화된 민간 은행인 뱅키아가 파산에서 구하려면 190억 유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페인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6월 9일, 경제부 장관은 스페인이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1,000억 유로의 금융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 위기와 함께 Mariano Rajoy의 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카탈루냐에서의 독립 운동 도전이었다. 2006년 카탈루냐 자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카탈루냐 독립주의의 성장은 2010년 7월 바르셀로나에서 "소무나나니시오, 소금 없는 결정"(우리는 하나의 국가, 우리가 결정한다)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거부주의 시위로 이어졌다. 이후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성장은 2012년 9월 11일 바르셀로나에서 자칭 카탈루냐 국회가 조직한 대규모 시위를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2013년 1월 23일, 카탈루냐 의원은 "주권과 카탈루냐 국민의 결정권에 관한 선언"을 승인했고, 그 첫 조항은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2013년 9월 11일, 카탈루냐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대한 인간 사슬이 "독립을 위한 카탈루냐 길"이라고 불리는 영토로 통합되었고, 3개월 후 독립 찬성 선거권 정당들은 2014년 11월 9일의 참정권 문제와 날짜에 합의했다. 2014년 1월, 카탈루냐 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동의를 하였으나, 4월 8일 스페인 의회 본회의에서 절대 다수로 부결되었다. 2017년 9월 6일, Rajoy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카탈루냐 의회는 국민투표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10월 1일, 최근 수십 년간 스페인에서 전례 없는 긴장감 속에서 국민투표의 날이 열렸다. 투표는 카탈루냐 의회가 보편적 전자 센서스를 승인한 후 최소한의 보장 없이 이루어졌으며, 봉투 없이 투표로 투표할 수 있고 법적 보장 없이 집에서 인쇄가 가능했다. 첫 몇 시간 동안, 시민 경호원과 국가 경찰은 투표를 막고 투표함을 압수하기 위해 여러 투표소에 개입했다. 경찰 고발의

이미지는 언론에 의해 "유럽의 수치"로 여겨졌다. 닷새 후 카탈루냐 정부는 독립 기구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선거인단의 43% 즉, 2,286,217명이 투표했고, 이 중 204,408,38명이 투표의 90%를 차지하는 찬성표를 던졌다. 10월 21일, Rajoy는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수립된 이래 처음으로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 헌법 155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자치단체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스페인의 일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정부는 전술한 일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요청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원의 절대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전항에 규정된 조치의 실행을 위해 정부는 자치위원회의 모든 당국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 결과, 카탈루냐의 대통령을 제외하고, 독립 과정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투옥되었고, 그는 여전히 그가 거주하는 브뤼셀로 도망쳤다. 수감된 정치인들은 2021년 6월 사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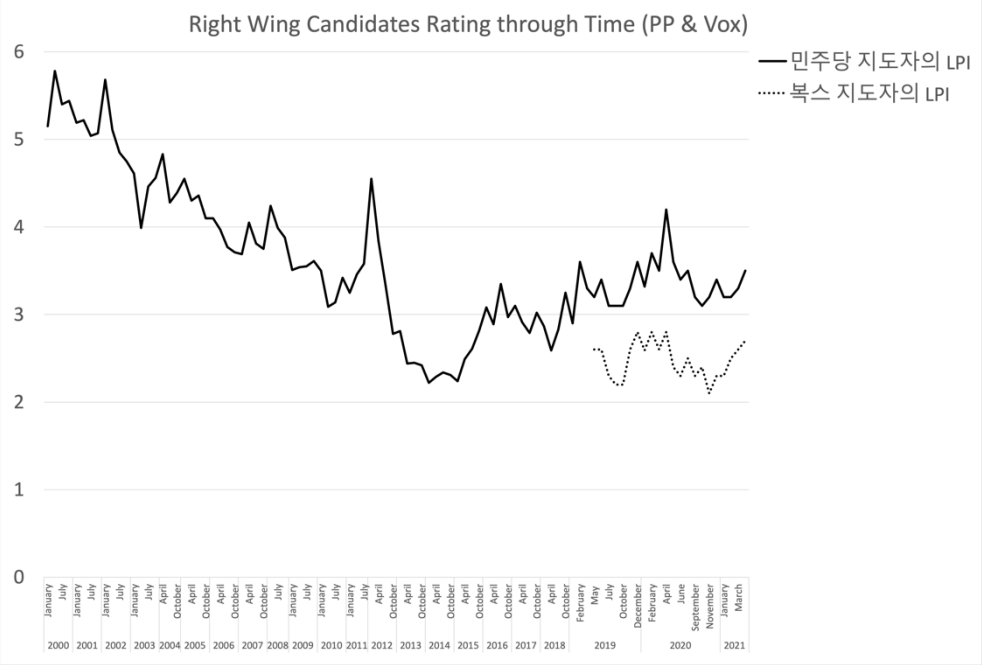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조치의 결과로 새로운 부패 사례와 낮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Rajoy의 위임은 2018년 6월에 투표가 되고 승인된 문책 동의로 끝났다. 총 5번의 문책 동의 중, 이때는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에서 승인된 첫째 사례다.

Mariano Rajoy가 떠난 후, 국민당은 Pablo Casado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했다. Pablo Casado는 나머지 정당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더 젊은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국민당을 청소하고 재활 성화하려는 그의 시도에 실패했다. 2019년 총선에서 국민당은 4월 16.7%, 11월 20.8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89년 국민당의 제1차 총선에서 25.79%의 득표율로 Aznar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이 2019년까지 가장 낮은 결과였다.

이 국민당 지도자들의 역사 발달은 국민당 지도자의 지지율 (LPI)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표 18이 국민당 LPI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표시한다. 인기가 가장 낮은 순간은 2015년에 발생하는데, 이 순간부터 조금씩 회복되었다. 인기가 가장 낮은 순간은 2015년에 스페인 사회 노동당이 동의 문책이 얼리기 바로 전이다. 복스가 그래프에 2019년에 등장할 때부터 복스의 LPI는 국민당의 LPI와

비슷한 상승 추세이지만 복스는 보다 낮은 인기도 지수를 제시한다. 표 8에는 Aznar 정권 초기에 비교적 높은 지수를 보여주지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2016년 초기 회복세까지 Rajoy의 임기 내내 강조되며 2018년 Casado의 입성 이후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는 우파 표심을 단일화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부재가 스페인 정치의 우파 영역에서 지도부에 대한 대안의 출현을 촉진시켰음을 시사한다. 카리스마가 없고 눈에 띄게 부패한 정당의 수장이었던 Rajoy에 대한 기억은 ETA의 테러리즘과의 싸움과 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소통 전략과 관련된 정치적 과거와의 젊은 Abascal의 이미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표 7.



출처: CIS (1996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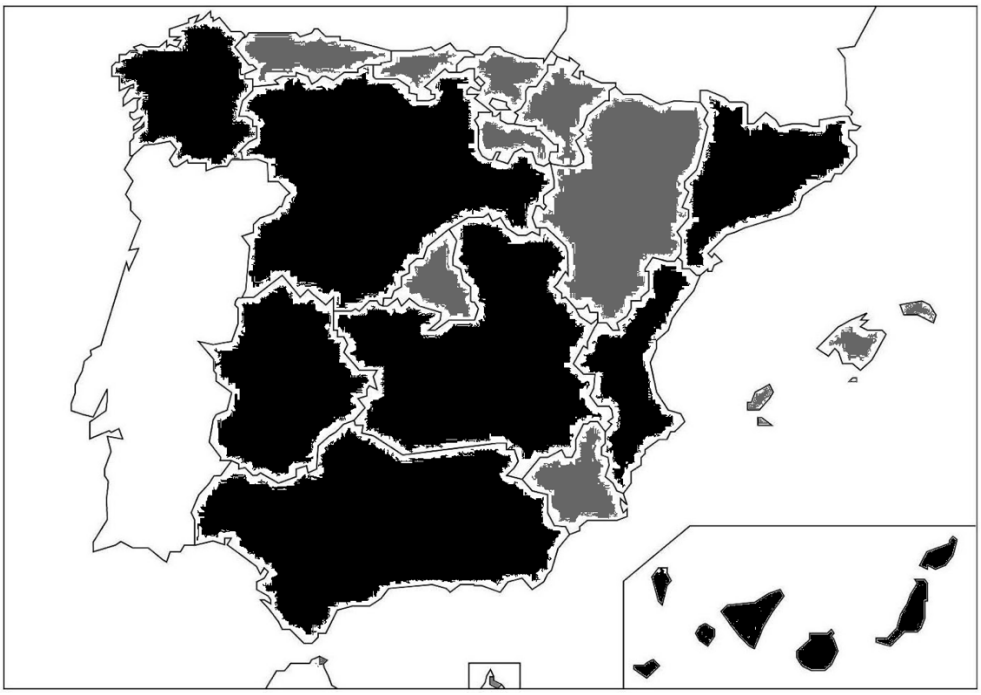
복스가 우파 유권자들에게 주도해온 분열은 스페인 우파의 전체 스펙트럼의 유권자들과 동등한 관심사인 정치적 문제에 대한 보다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되었다. 이것은 스페인 민족주의 정서와 정체성과 권위주의적 감성도 보수주의와 전통주의도 활성화시켰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복스의 이러한 감성은 비록 일부 사양은 있지만 급진 우파 정당의 지지 기반에서 예상되는 패턴에 매우

가깝다. 첫째, 이러한 유권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감성은 또한 카탈루냐의 분리나 이민에 대한 우려 (Arroyo Menéndez, 2020), 그리고 현재 페미니즘과 LGTBIQ+의 상승과 같은 다른 우파 단체의 유권자들과 공유되는 감성이다. 복스가 다른 우파 정당과 같은 정치적 감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복스의 차별점은 타 우파 정당보다 급진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복스들의 유권자들은 다른 우파 정당 유권자보다 자가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이처럼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는 기간에 Abascal은 국민당 지도부의 붕괴에 직면하여 우파 유권자들의 많은 부분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우파 정당들의 공통 이념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은 시우다노스의 보다 중도적이고 신중한 접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스페인 시민들에 의해 중도우파(표 13)로 식별된 시우다다노스는 복스의 상승과 대조적으로 선거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잃었다. 2019년 총선에서 시우다노스는 4월에 15.86%를 얻었고, 2016년 총선보다 3% 가까이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11월에는 6.79%로 떨어졌다. 반면 복스는 4월 10.26%를 얻어 11월 15.09%까지 올랐다. 이는 우파 대안에 대한 투표가 4월 시우다노스에 대한 선호에서 같은 해 11월 복스에 대한 선호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표시한 복스의 동원 전략,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 우파 지도자의 경쟁은 국민당과 복스의 의회에 대표성이 2015년부터 2019년말까지 진행한 4까지 총선거에 큰 경향을 미쳤다. 우선 국민당이 2015년부터 2019년말까지의 총선거를 통해서 지지율을 증가하고 감소하는 변동했다. 국민당은 2016년 선거에서 2015년 선거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선거를 이겨서 Rajoy의 행정이 연속했다. 2015년 선거의 투표수가 광역자치주 8개에 증가했으며 남은 광역자치주에는 대표성을 유지했다 (그림 8). 다만 국민당이 2016년에 얻은 지지가 2019년 4월 선거에 폭 감소했다 (그림 9). 대부분의 광역자치주의 대표성을 감소하며 광역자치수 4게에만 대표성을 유지하고 아라곤에서만 대표성이 증가했다. 2019년11월 선거에는 국민당이 지난 선거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표성이 대부분의 광역자치주에서 증가했다 (그림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2015년과 2019년 11월의 결과를 비교하(그림 2)면 대부분 광역자치주의 대표성이 감소했고 광역자치주 5개에만 대표성을 유지하고 아라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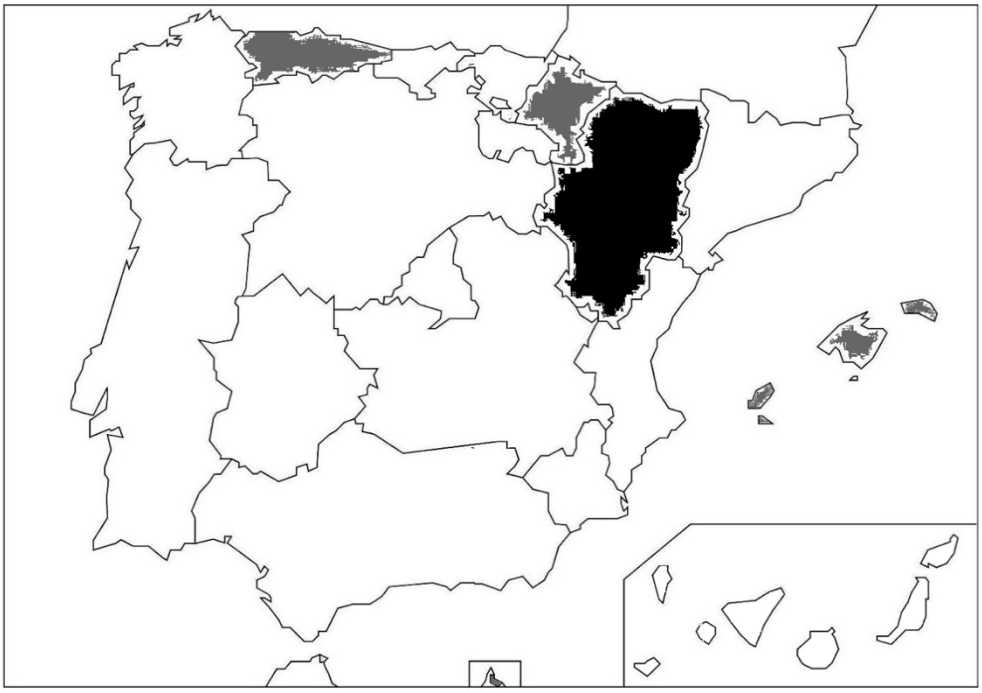
갈리시아에만 대표성이 증가했다. 반면에 복스가 2019년 4월 선거에 얻은 대표성(그림 11)이 2019년 11월의 선거에 광역자치주 7개의 대표성이 유지하며 남은 광역자치주의 대표성이 모두 증가했다(그림 3). 다시 말해서 국민당의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한 전체 대표성의 변화가 감소하는 경향 반면에는 복스의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한 전체 대표성의 변화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림 8. 국민당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5년 – 2016년 총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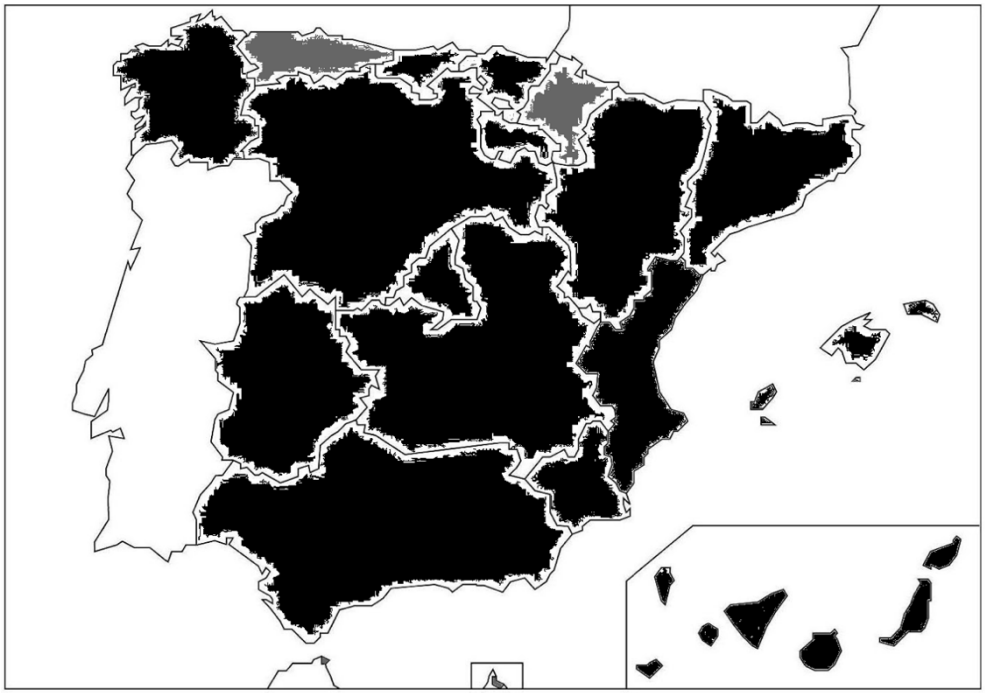
출처: BOE

그림 9. 국민당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6년 – 2019/4년 총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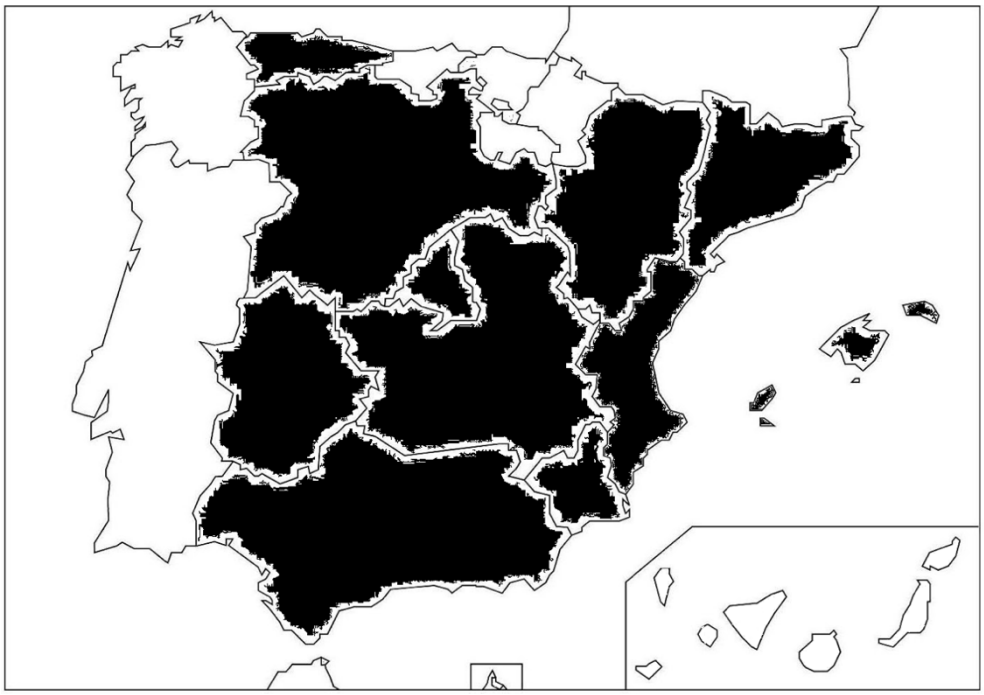
출처: BOE

그림 10. 국민당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9/4년 – 2019/11년 총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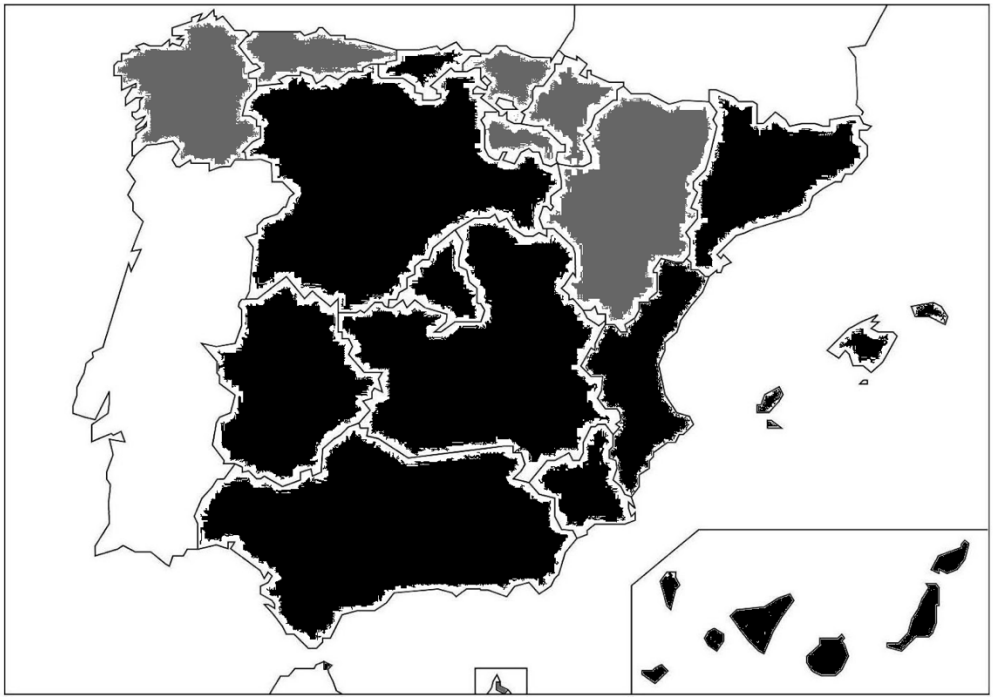
출처: BOE

그림 11. 복스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6년 – 2019/4년 총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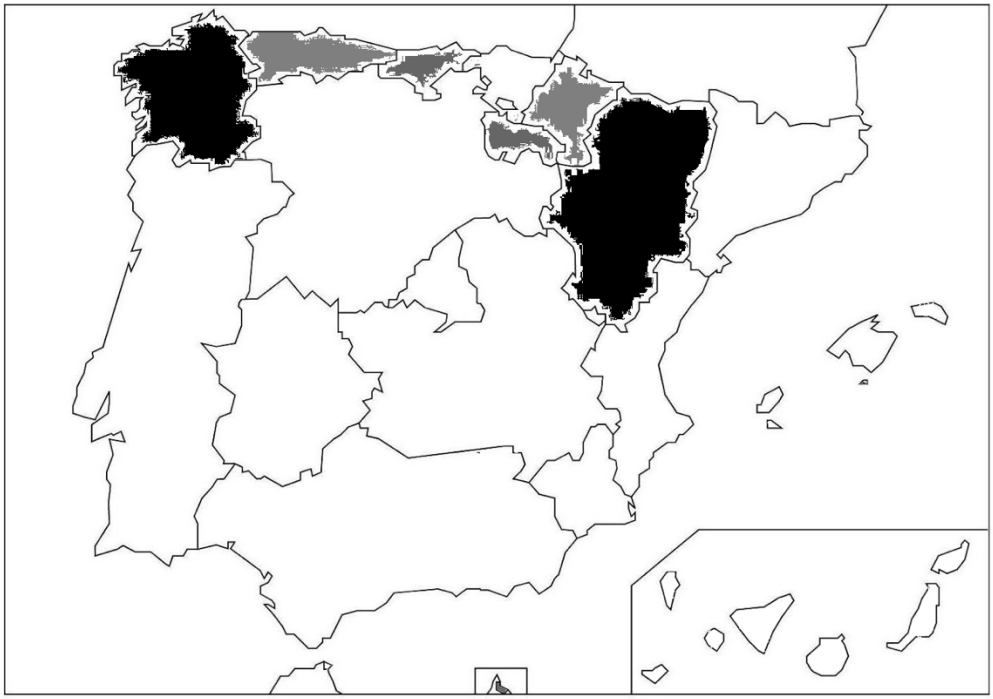
출처: BOE

그림 3. 복스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9/4년 – 2019/11년 총선거)



출처: BOE

그림 2. 국민당의 위원회 대표성 변화 (2015년 – 2019/11년 총선거)



출처: BOE

한마디로 복스가 우파 영역에서의 당파적 주도권 경쟁의 틀에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파 표심을 단일화할 수 있었던 Aznar 정권 이후 국민당이 정당성과 인기에 장기적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 우파 영역에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전략과 극우 이념을 가진 복스가 정치적 노선이 더 중도적인 시우다다노스보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제 4 장 결론

본 논문은 2019년 11월 총선에서 복스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원인을 찾기 위해 정치 이념, 동원 전략, 정당 간 경쟁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급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학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와 관련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첫 번째 결론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계의 당파적 이익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스의 선거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없었기 때문에 복스의 선거 성공의 원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2019년 11월 총선에서 복스가 얻은 결과는 스페인 국민들이 가지는 이념의 양극화 추세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스페인 사람들의 정치적 자가 이념에 대한 평가(PSI)에 의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에는 변화가 크게 없었고, 따라서 현재의 복스 유권자들은 복스가 존재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이념의 평가(PPI)에 의하면 국민들의 우파 정당들에 대한 평가는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스페인 정당들의 동원 전략과 우파 정당들의 경쟁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한다.

셋째, 복스는 정치마케팅 3.0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동원 전략을 통해 나머지 정당들과 차별화를 입증했다. 정치마케팅 3.0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더 넓은 연령 투표자의 목표 그룹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제안; (2) 3.0 정치 마케팅 환경의 기본 전략의 집중적인 사용: 공동 창조와 협업 경제; (3) 명성을 얻기 위한 강력한 제스처를 포함한 서사적 서술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개발; (4) 전통적인 미디어의 지원 없이 소셜 미디어만을 통한 브랜드와 메시지의 구축.

넷째, 복스가 우파 영역에서의 당파적 주도권 경쟁의 틀에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파 표심을 단일화할 수 있었던 Aznar 정권 이후 국민당이 정당성과 인기에 장기적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 우파 영역에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전략과 극우

이념을 가진 복스가 정치적 노선이 더 중도적인 시우다다노스보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안정되어 보였던 스페인의 양당 체제에 대해 예견된 것과는 달리, 극우정당인 복스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페인의 사례와 민주주의 역사상 양당체를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극우 정당의 의회 입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지표를 방치할 경우 한국도 비슷한 당 체제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스펙트럼의 특정 영역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촉진한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게끔 하고 이는 잘 확립된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정치 엘리트의 세대교체를 초래할 수 있다.

스페인과 유사하게 대한민국에서도 정치 엘리트의 부패 사건이 국민의 큰 우려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사례에 따르면 이 또한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일으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래 가장 큰 부패 사건(구르텔)으로 야기된 2011년 3월 15일(15M)의 시위는 포데모스의 창당과 포데모스의 2015년의 선거의 성공으로 이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 사건으로 일어난 시위는 신생정당의 설립 대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것으로 스페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부패 사건에 대한 반응과 대응 방식이 다르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한국의 두 다수당은 스페인과 달리 현재까지 각 당과 같은 이념적 견해를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독점했다. 한국 정당 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 엘리트 멤버들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경우 제도화가 된 국민당과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내부적인 부패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남아 지도자가 바뀐 후에도 정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스페인과 달리 정당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정치 동원 전략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치적 토론이 가능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들이 사용 가능한 더 효과적인 새로운 동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정치 마케팅 3.0과 관련한 동원전략을 사용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IT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정당이 한국 정치 체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수많은 독립 운동들은 복스의 투표 점유율의 긍정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유사하게 한국에서 또한 지역주의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의 경향도 급진당의 지지율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지표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분석의 목적은 스페인 극우세력의 부상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 새로운 지식, 접근 방법 및 질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 함으로서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의 적절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참고 문헌

Acha Ugarte, Beatriz (2021). Analizar el auge de la ultraderecha. Presentación de Cristina Monge y Jorge Urdánoz (págs. 9-13). Barcelona: Gedisa.

Almeida, Dimitri (2012). Th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on Political Parties: Beyond the Permissive Consensus. *Taylor & Francis.*

Altozano, G. & Llorente, J. (2018) La España Viva: Conversaciones con doce dirigentes de Vox. Kalma los Libros. Madrid.

Aparici, R. & García, D. (2019) La posverdad: una cartografía de los medios, las redes y la polñitica. Gedisa, Barcelona.

Arias Maldonado, M. (2017) Las Bases Afectivas del Populismo. Revista Internacional de Pensamiento Político. I Época. Vol. 12, p. 151-167

Arias Maldonado, M. (2019) Claroscuros Populistas. Anales de la Cátedra Francisco Suárez. No. 53, p. 325-335

Arroyo Menéndez, M. (2020) Las causas del apoyo electoral a Vox en España. Política y Sociedad. Madrid. Vol. 57, No. 3. P. 693-717

Barómetro del CIS (1996 – 2020).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Madrid.

Bar-On, Tamir (2018). The Radical Right and Nationalism. The Oxford Handbook of the Radical Right. Jens Rydgren (e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41

Boletín Oficial del Estado.

Bosco, Anna., Verney, S., Adams (2017). Crisis Elections, New Contenders and Government Formation (en inglés) (1.ª edición). Routledge. p. 10. ISBN 9781138572430. «Along with Syriza and other far-left parties, Podemos identified itself as Euroscepticand against EU austerity policies.»

Calleja, I. S. (2022, January 29). Vox y sus aliados europeos cierran la Cumbre de Madrid culpando a Putin de la crisis. elconfidencial.com. Retrieved June 30, 2022, from https://www.elconfidencial.com/espana/2022-01-29/cumbre_3366621/

Cañizares, M. J. (2015). La calculada ambigüedad de Rivera. abc. Retrieved June 25, 2022, from https://www.abc.es/espana/20150313/abci-ambiguedad-albert-rivera-ciudadanos-201503120923.html

Casals i Meseguer, Xavier (2020). El ultranacionalismo de VOX. Cinco claves para comprender "La España viva". *Grand place: pensamiento y cultura* (13): 27-35.

Cid, G. (2018, December 3). El arma secreta de Vox en la red: Así alcanzó votos por whatsapp en su campaña electoral. El Confidencial. Retrieved April 14, 2022, from

https://www.elconfidencial.com/tecnologia/2018-12-03/arma-secreta-vox-whatsapp-camapanas_1683286/

Colegio Mayor Jaime del Amo (2018, March 13) Conferencia de D. Santiago Abascal, Presidente de Vox. Retreived April 13, 2022, from https://www.jaimedelamo.org/noticia/conferencia-d-santiago-abascal-presidente-vox

Cordero Verdugo, R. & Reyero Simón, L. (2021) El marketing político 3.0 y el uso de la posverdad por parte de los partidos políticos en España. Sapienz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Vol 2. No. 1. P. 66-85

Diamandouros, P., et al. (2001). Parties, Politics, and Democracy in the New Southern Europe (en inglés). *JHU Press*.

Diewert W.E. & Nakamura A. O. (1993) Essays in Index Number Theory. Ed. North-Holland.

Duverger, Maurice. (1997)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2): 165-187.

Encarnación, Omar G. (2008). Spanish Politics: Democracy After Dictatorship. *Polity*. pp. 61-64.

Europa Press (15th September, 2014). El PSOE votará en contra de la "oportunista" moción de IU a favor de un referéndum sobre República o Monarquía. www.europapress.es. Retrieved on June

20th 2022.

Ernst Hillebrand (May 2014). "Right Wing Populism in Europe – How do we Respond?" (PDF). Friedrich Ebert Foundation.

Etxezarreta Zubizarreta, Miren (1991) La reestructuración del capitalismo en España, 1970-1990. *Icaria.*

Federación Andaluza de Caza (2018) Retreived on April 13, 2022, from https://www.fac.es

Fernández, E. (2016, March 21) Podemos ganar ´share´ con Pablo Iglesias. El Mundo. Retreived April 15, 2022, from https://www.elmundo.es/television/2014/06/11/539750f7e2704ed8718b45a2.html

Ferreira, Carles (2019) Vox como representante de la derecha radical en España: un estudio sobre su ideología. Revista Española de Ciencia Política, 51, 73-98

Ferreiro, Jesus & Serrano, F. (2001) The economic policy of the Spanish Socialist governments: 1982–1996. p. 155. ISBN 1843762838.

Fronteras, E. S. (2019, July 10). El Neoliberalismo progresista del PSOE. ElDiario.es. Retrieved June 30, 2022, from https://www.eldiario.es/opinion/zona-critica/neoliberalismo-progresista-psoe_129_1482052.html

Givens, T. (2005). The Radical Right. In Voting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pp. 18-4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bierno de España. (n.d.). Sistema Político. Gobierno de España. Retrieved May 4, 2022, from https://administracion.gob.es/pag_Home/espanaAdmon/comoSeOrganizaEstado/Sistema_Politico.html

Harrop, M. (1990) Political Marketing. Parliamentary Affairs. Volume 43, Issue 3, July 1990, p. 277-91

Herrera, Carlos (8 de octubre de 2018). «¿Qué opina Herrera sobre Vox?». COPE

Hloušek, Vít; Kopeček, L. (2016). Origin, Ideology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Hochstetler, K. (2006) *Rethinking Presidentialism: Challenges and Presidential Falls in South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Ashgate*.

Jansen, Thomas; Van Hecke, S. (2011) At Europe's Service: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European People's Part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p. 53.

Jaraiz Gulias, E., Cazorla Martín, A., Peréira López, M. (2020) El Auge de la Extrema Derecha en España. Ed. Tirant lo blanch. Valencia.

Juarez, J. (2003) Hacia un estudio del marketing político: limitaciones

teóricas y metodológicas. Espiral. Universidad de Guadalajara, Mexico. Vol. 9, No. 27, p. 61-95

Juliá, Santos (1997). Los socialistas en la política española, 1879-1982. Madrid: Taurus. p. 507-508.

Kaplan, Jeffrey; Weinberg, Leonard (1998). The Emergence of a Euro-American Radical Righ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Linz, Juan. J. 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Linz, Juan J. (1998)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ohns Hoplins Univ. Press, 1998.

Maarek, P. J. (1997) New trends in French political communication: the 1995 presidential elections. Media, Culture & Society. London. Vol. 19, p. 357-68

Magone, José M. (2017). Contemporary Spanish Politics. *Routledge.*

Martín Arce, José María (2008). Los Socialistas en el poder (1982-1996). *Historia y política: Ideas, procesos y movimientos sociales* (20)

Martínez, J. (2020, April 18) De Whatsapp a telegram: Vox, de red en red entre bulos masivos y ataques al gobierno. infoLibre. Retrieved April 14, 2022, from

https://www.infolibre.es/politica/whatsapp-telegram-vox-red-red-bulos-masivos-ataques-gobierno_1_1182266.html

Martínez, Jesús A., Martín, Jesús A. Martínez, Aróstegui, Julio (1999). Historia de España siglo XX, 1939-1996. *Cátedra*.

Medina Lucía, Torcal, M., & Perea, A. E. (2015). 4. La División Izquierda-Derecha y los Temas. In Izquierda y derecha en españa: Un Estudio longitudinal Y comparado.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Madrid, 1st ed., p. 49

Montalbes, J. & Cazorla, A. (2021). Condiciones en el seguimiento de la extrema derecha. El auge de la Extrema Derecha. Ch. III

Mora, A. (2021, April 13) Vox. El Partido con más búsquedas y presencia en redes sociales. Marketing Directo. Retrieved April 15, 2022, from https://www.marketingdirecto.com/digital-general/digital/vox-partido-presencia-redes-sociales-busquedas-google

Minkenberg, Michael (2011). The Radical Right in Europe Today: Trends and Patterns in East and West. Is Europe on the "Right" Path. Nora Langenbacher and Britta Schellenberg (eds.). Bonn: *Friedrich-Ebert-Stiftung*. pp. 37–55.

Mudde, Cas (1996). The War of Words: Defining the Extreme Right Party Family. *West European Politics*. 19 (2): 225–248.

Müller, J. (2019) La sorpresa Vox. Las respuestas a las 10 grandes

preguntas que todos nos hacemos sobre Vox. Ediciones Deusto, Bilbao.

Navarro, Vicenç (2015). Las mentiras y falsedades de Albert Rivera, presidente de Ciudadanos, en 'La Sexta Columna'. *Público.* Retreived on June 23, 2022

Newton, Michael T. (1997). Institutions of Modern Spain: A Political and Economic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00.

O'Cass, A. (1996) Political Marketing and the marketing concep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MCB University Press. Leeds. Vol. 30 No. 10/11, p. 37-53.

Ollero Butler, Fernando (1st January 1980). El congreso extraordinario del PSOE (septiembre de 1979). *Revista de Derecho Político* (6): 205

Palacio Martín, Jorge del; Rico Motos, Carlos Miguel (2017). Introducción. *Revista Española de Ciencia Política* (44): 211-217

Pía Lara, M. (2019) The term 'Populism' as a combat-concept and a catchword.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45(9-10), p. 1144-1156

Rey del Castillo, P. (2004) Nota metodológica sobre los indicadores del barómetro del CIS. Revist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núm. 108, pp. 151-78.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Madrid, Spain.

Reyero Simón, L. & Cordero Verdugo, R. (2020) Marketing Político 3.0. Cómo Podemos, Ciudadanos y Vox han cambiado las reglas del juego. Ed. Tecnos. Madrid.

Reyes Montes, M. C., et al. (2010) Reflexiones sobre la comunicación política. Espacios Públicos. Universidad Autónoma del Estado de México. Mexico. Vol. 14, No. 30, p. 85-101

Riaño, M. (2019, March 4) Vox recauda más de 200,000€ por crowfunding en 72 horas para financiar la campaña. El Independiente. Retrieved April 14, 2022, from https://www.elindependiente.com/politica/2019/03/03/vox-recauda-100000-euros-crowdfounding-financiar-campana/

Robins-Early, Nick (12 February 2015). "A Field Guide To Europe's Radical Right Political Parties". The Huffington Post.

Rodriguez Aquilera, C. M. (2014) The Rise of the Far Right in Europe. *IEMed Mediterranean Yearbook*. Retrieved June 10th, 2022, from https://www.iemed.org/publication/the-rise-of-the-far-right-in-europe/?lang=ca

Roma, B. (2019, March 3) Vox recauda 70.000€ dos horas después de iniciar un crowfunding por un millón para el 28-A. El Español. Retrieved April 14, 2022, from https://www.elespanol.com/espana/20190303/vox-recauda-

eur-despues-iniciar-crowdfunding-millon/380462276_0.html

Shama, A. (1975) Applications of Marketing Concepts to Candidate Market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Urbana, III: Association of Consumer Research. Ohio. Vol. 2, p. 793.

Share, D. (1989). Dilemas of Social Democracy: The Spanish Socialist Workers Party in the 1980s. Greenwood. Miren Etxezarreta (1991)

Sola, Jorge; Rendueles, César (2017). Podemos, the upheaval of Spanish politics and the challenge of populism».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Routledge.

Spierings, N. & Zaslove, A.S. (2017). Gender, populist attitudes, and voting: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voting for populist radical right and populist radical left parties. *West European Politics*, 40 (4), 821-847.

Stanley, B. (2008). the Thin Ideology of Populism.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13, no. 1, p. 95-110

Taggart, P. (2000) Populism. Buckingham an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Turcu, Anca; Urbatsch, R. (2020). Aversion to far-left parties among Europeans voting abroad.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P. 118.

Ungureanu, C. & Serrano, I. (2018) El populismo como relato y la

crisis de la democracia representativa. CIDOB d'Afers Internacionals. No. 119, p. 13-33

Vox (2022, March 30) Charla de Cristina Peláez a los alumnos del Colegio Mayor San Juan Bosco. Voxespana.es. Retreived April 13, 2022, fromhttps://www.voxespana.es/noticias/charla-de-cristina-pelaez-a-los-alumnos-del-colegio-mayor-san-juan-bosco-20220330?provincia=sevilla

Vox (2021, November 01) Vox acude al Defensor del Menor para asegurar una educación sin adoctrinamientos en los colegios de Dos Hermanas. Voxespana.es. Retreived April 13, 2022, from https://www.voxespana.es/noticias/vox-acude-al-defensor-del-menor-para-asegurar-una-educacion-sin-adoctrinamientos-en-los-colegios-de-dos-hermanas-20211101?provincia=sevilla

Vox (2018, November 12) Abascal y Morante montando a caballo. Twitter. Retrieved April 14, 2022, from https://twitter.com/vox_es/status/1062037112072142849.

Wahl, Klaus (2020). The Radical Right. Biopsychosocial Roots and International Vari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p. 14.

Abstract

The success of the far-right party an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voters in Spain's 2019 election

Ribas Ramirez, Cesar Augusto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the Spanish far-right party, Vox, won 12 of the 109 seats in the Andalusian parliament in 2018, Europe's far-right exceptionalism in Spain ended. Until then, Spanish politics had been free from the existence of far-right politicians in national and regional parliaments. This paper aims to find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f Vox in the November 2019 general election in Spain. It concludes that the factors behind this success are based on political mobilization strategies and political competition factor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far-right phenomenon in Europe has been frequently related to the term populism, and that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in its presence. There are many arguments in favor of this hypothesis, but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questi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term populism to define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in the case of Vox in Spain. The term "populism" is not sufficiently defined academically and is likely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isan interests of the political world. Therefore, this paper avoids the use of the term 'populism' to explain Vox's election success. Instead, it analyzes the Spanish people's self-political ideology; Vox's mobilization strategies; and political competition factors among Spanish right-wing par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panish people's self-political ideology (PSI) shows that the people's political ideology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current Vox voters had the same political ideology before and after the party existed.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Spanish people's evalu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ideology (PPI), the people's evaluation of right-wing parties has changed remarkably. In this paper, this is interpreted because of the mobilization strategy of the Spanish new political parties that emerged from 2015 to 20019,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 competition for leadership within the political right parties.

Second, Vox proved its differentiation from the rest of the political parties through a mobilization strategy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olitical marketing 3.0. These differentiation points are: (1) a sophisticated political proposal focused on a wider age group of voters'; (2 An intensive use of the two basic strategies in the political marketing 3.0 framework: co-creation and collaborative financing; (3)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styles featuring narrative gestures to create an emotional impact in the electorate; (4) a message and brand building exclusively developed throughout social media, ad without the support of the traditional media.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Vox entered the framework of partisan leadership competition in the right-wing area, competition in the political right-wing area intensified as the Kuomintang suffered a long-term crisis in legitimacy and popularity after the Aznar

administration. At this time, Vox, with a relatively aggressive strategy and identified as a far-right ideology party, proved that it's approach to political communication has been more effective in persuading voters than those of the more centrist Ciudadanos and the traditional People's Party (PP).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add on the creation new knowledge, approaches, and questions to political debates related to the rise of the Spanish far-right party. The findings outlaid in this work could serve as a warn of the dangers within the current liberal democratic systems, thus contributing to the appropriate development of the current democratic state.

Keywords: New political parties, extreme-right parties, political ideology, mobilization strategies, political competition
Student Number : 2020-20072